

11 2024 VOL. 341

www.innekorean.or.id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한인뉴스

KOREAN NEWS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The all-new SANTA FE 출시

Live Bigger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2열 전동 독립시트 (원터치 워크인)



하이브리드 전용 AVN 콘텐츠



현대 스마트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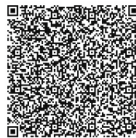
현대 블루링크

[판매 및 서비스 문의]

- 현대자동차 콜센터 (0-800-1-878-878), 한국어 서비스 3번 선택 / 한국 교민전담팀 대응
- 자세한 내용은 현대차 홈페이지 (www.hyundai.com/id) 를 참조하세요

[한국인 금융상담]

- Sunindo KB Finance : +62 821-2595-5095 왓츠앱 문의
- 신한은행 : 1500881 또는 카카오톡 '신한인도네시아은행' 채널 검색



www.hyundai.com



월간 한인뉴스 11 2024

한인뉴스 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발행인 박재한 배상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박재한

편집인 김희년

논설위원 신성철

편집장 홍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영미, 조은아

표지 편집국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표지 사진 : 코리안데이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2024.10.2.)

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알쏭달쏭한 말 한마디 "뜨리마까시",
"인살라"

8

‘특별한 동반자, 팀코리아-인도네시아’
리셉션 개최

10

한덕수 총리, 동포대표 초청간담회 열어

12

[김재훈의 '세무 TALK']

Influencer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대한 세금

13

[디카시 풍경] 산다는 것은

<김주명>



contents

2024. 11. 통권 341호

14

제18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서 박재한 회장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16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 인도네시아〉

20

[여기가 맛집]
Dominica Jakarta
〈황지영〉

24

[배동선 작가의 술술 읽히는
인도네시아 역사 15]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28

[서상영의 한방칼럼 19]
생활 한의학 3

32

죽음과 삶의 경계가 없는
전설의 땅 토라자 〈조은아〉

36

[자카르타의 아침]
OB, 해저드가 낫을 때 타수
계산 〈손상현〉

40

[행복에세이] 날갯짓 〈김준규〉

42

[칼럼] 노벨문학상과 번역가
〈조연숙〉

44

Hyaang the Yoga 2
〈Michelle〉

48

진짜 운전면허증 〈남기훈〉

52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11
〈신성철〉

56

[이영미의 인터뷰 2.0]
SystemEver Indonesia
‘대표이사 Charles Kwon’

61

자바너머 황금섬 이야기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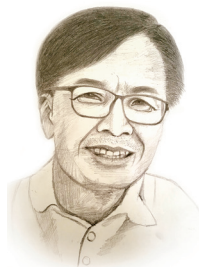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법 해설(339)
법치국가 〈이승민〉

64

JKS 소식

68

생활정보



논설위원 신성철

알쏭달쏭 말 한마디 “뜨리마 까시”, “인살라”

인도네시아 관광지에 가면 상인들의 호객 행위가 성가시다. 선불리 대응하면 계속 따라 붙기 일쑤다. 이때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낮은 음성으로 “뜨리마 까시~” 라고 말한다면, 더 이상 추근거리지 않고 물러난다. 자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마법의 말 한마디이다. 물론, 권유에 대한 정중한 거절로 “띠닥 뜨리마 까시” (Tidak terima kasih) 또는 “뜨리마 까시” 를 쓸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가장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뜨리마 까시” (Terima Kasih, 감사합니다)이다. 이 말은 누군가가 해준 도움, 선물, 또는 친절한 행동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직역하자면, “Terima kasih” 는 “terima” 는 “받다” 를 의미하고, “kasih” 는 “사랑, 친절” 또는 “선물” 을 의미한다. 그래서 직역하면 “사랑(호의)을 받는다” 라는 뜻이지만, 일상적인 의미로는 “고맙습니다” 에 더 가깝다. 또 의견이나 발표를 마치고 맺음말로 “뜨리마 까시” 라고 하면 무난하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를 교육하는 고등교육기관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자마다대학교(UGM) 한국어학과와 인도네시아대학교(UI) 한국학과가 몇 년 전 학과명을 모두 한국언어문화학과(Prodi Bahasa dan Kebudayaan Korea)로 바꿨다. 언어와 문화의 밀접한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언어는 문화를 반영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문화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 신자가 85% 이상인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인살라” (Insha Allah)라는 말이 있다. “신이 허락한다면”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인살라” 는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약속이나 기대하는 바를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당장 결정하기 어렵거나 본인이 결정 권한 밖에 있다는 의미를 애둘러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일상 대화에서 습관적으로 사용한다. “인살라” 라고 말할 때, 그들의 말씨나 표정을 순간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면 그들의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속내를 알 수 없는 “인살라” 를 듣는 순간,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상 대화에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인살라” 는 모든 결정에 신중한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습성을 나타낸다. 동남아시아 해양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바다를 통한 해상무역을 통한 경제 활동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환경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신에 의존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네시아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인근 왕국 간 또는 멀리 인도, 중국, 중동의 상인들과 거래하려면 이방인과 신뢰를 쌓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만큼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는 신중한 태도이며, 이렇게 맺은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네시아에는 300여 종족이 있으며, 그 중 인구의 45%인 약 1억2천만 명의 자바족이 자바섬 중부와 동부에 살고 있고, 전국적으로 흩어져 거주하는 만큼 자바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자바사람들의 신앙이자 생활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꺄자웬(Kejawen)이 이들의 삶의 저변에 깔려 있다. 이들은 ‘아니다’라는 의미의 띠닥(tidak)이라는 부정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과의 갈등이나 마찰을 회피한다. 무엇인가를 사양할 때조차 인도네시아인은 트리마까시(감사합니다)라고 말하거나 미소를 짓는다. 따라서 자바인들과 대화할 때 ‘야’(ya 또는 iya)가 진정한 의미의 ‘예’인지 ‘아니오’인지를 구별하기 위해 상황이나 표정을 살펴야 하고, 인도네시아 안에서도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다른 종족이나 외국인들은 자바사람들을 음흉하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일상 대화에서 거북하게 느껴지는 단어들도 이해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인들이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우회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로 ‘끼라끼라(Kira-kira 대략), 뭇킨(mungkin, 아마도), 띠닥따우(tidak tahu 모른다), 꾸랑따우(kurang tahu, 잘 모른다), 무다무다한(mudah-mudahan, 모쪼록), 떠르스라(terserah, 알아서 하세요), 인살라(insya Allah, 신의 뜻대로) 등이 있다.

사실대로 말해서 상대를 언짢게 하는 걸 원치 않거나 말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할 때는 부모 또는 가족이 아프거나 일이 생겨서 할 수 없다고 하기도 한다. 또한 때때로 실수하거나 무안한 마음이 들 때, 웃거나 미소를 짓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현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외국인 직장 상사의 화를 돋우기도 한다.

인도네시아인의 미소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정말로 만족하거나 수긍할 때와 어색, 당혹스러움, 부끄러움, 민망, 근심, 거부, 긴장감 등을 감추려 할 때이다. 후자의 경우 인도네시아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은 무시당한다거나 뻔뻔하다고 느끼고 화가 날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조차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반가워하며 친근하게 다가온다. 이들의 환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신뢰를 쌓기 위해 기다림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격언에 “비아르 람밧 아살 슬라맛”(Biar lambat asal selamat)이라는 말이 있다. “늦더라도 확실한 게 낫다”라는 이 격언은 한국인의 습성인 “빨리빨리”와 대비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생활철학이다. 느림의 미학인 시간을 두고 관찰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이들을 태도에 익숙해져야 인도네시아인들과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 (끝)

‘특별한 동반자, 팀 코리아-인도네시아’리셉션 개최

- 대한민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기념 리셉션 계기 양국 관계의 새로운 50년의 원년 선포
- 농지공간기획부 장관, 환경산림부 차관 등 인도네시아 정부 고위인사 포함 총 700여명 참석하여 ‘팀 코리아-인도네시아 골 세레머니’ 응원



아구스 하리무르티 유도요노 농지공간기획부 장관과 박수덕 대사대리

10월 1일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주최로 대한민국 국경일 및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팀 코리아-인도네시아’ 리셉션이 아구스 하리무르티 유도요노(Agus Harimurti Yudhoyono) 농지공간기획부 장관을 주빈으로 인도네시아 정·관·재계 인사 및 군 장성, 외교단 및 동포사회 등 총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아구스 하리무르티 유도요노 농지공간기획부 장관 내외, 알루 도홍 환경산림부 차관, 간디 술리스티안토 대통령 자문위원(前 주한인도네시아대사) 등이 참석

특히, 이번 리셉션은 2023년도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이어, 양국 관계의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원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로 개최되었다.

※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1973.9.18. 외교관계 수립

박수덕 대사대리는 환영사에서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관계가 오는 10.20 출범하는 인도네시아 신정부와 함께 새로운 50년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고 축하하면서, 2045년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인도네시아의 ‘2045 골든 인도네시아 비전(Indonesia Emas 2045)’ 실현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임을 강조하였다.

박수덕 대사대리는 한국의 인도네시아 투자가 금년도 2/4분기에는 전체 해외투자국 중 3위를 기록하는 등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고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무역·투자뿐 아니라 식량안보, 농촌개발, 문화교류, 교육,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어 나갈 것임을 확신하였다.

※ 한국은 2023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6위 투자국이며(홍콩 제외), 2024년 2/4분기 對 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FDI) 13억 불로 3위를 기록

이번 리셉션은 「특별한 동반자, 팀 한국-인

도네시아(Special Partnership, Team Korea-Indonesia)」 슬로건 하에 개최되었으며, 앞으로 양국이 한팀(team)이 되어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박수덕 대사대리와 아구스 하리무르티 유도요노 농지공간기획부장관이 팀을 이루어 축구공을 골대에 골인시키는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현재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고 있는 신태용 감독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전달한 사인볼을 박수덕 대사대리가 아구스 장관에게 패스하였고, 아구스 장관이 힘차게 골을 넣자 ‘2045 골든 인도네시아 비전’ 향해 양국이 함께 나아간다는 의미의 대형 영상 메시지가 등장하여 장내를 압도하였다.

이외에도 리셉션장은 체험부스 운영 및 밴드 공연 등 한국 문화 홍보행사로 다채롭게 채워졌다. 리셉션 참석자들은 ▲올해 우리기업의 인도네시

아 내 사회적기업활동(CSR)을 총망라한 홍보영상 및 국군의날 기념 홍보 영상 ▲주인도네시아대사관 Youtube 채널 영상 ▲한국 관광·음식·음악 등 문화 홍보 영상 등을 시청하였으며, ▲한국문화원(KCC),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한국관광공사(KTO)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행사장 내 설치한 한국 악기, 한국 캐릭터, K-POP 및 한국 농식품 등 AI 기술을 접목한 체험부스에서 다양한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 국민이 함께 팀을 이루고 있는 ‘송창근 밴드-Selalu Cinta’가 연주하는 양국의 대표적 대중가요 공연을 즐기고 ▲Fly together(2023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대사관 직원이 작사, 작곡한 헌정곡) 영상을 함께 시청하면서 양국 국민 간 협력의 의미를 되새겼다.

(제공: 한국문화원)



프라보워 인니 대통령 취임식 참석

한덕수 총리, 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 열어

“인니 동포사회, 100년 넘는 긴 역사와 전통의 공동체”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0일 인도네시아 동포들을 만나 “지금처럼 전 세계가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 하는 때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자카르타를 방문 중에 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한 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좋은 기회로 보고 여기 계시는 동포 여러분과 힘을 합쳐가면서 각국과 관계가 더 좋아지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인도네시아가 매우 크고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나라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며 “정부와 동포 한 분 한 분 힘을 합쳐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관계가 더 좋아지고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동포 사회가 100년이 넘는 긴 역사와 전통의 공동체인 것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현 정부가 동포들을 위한 재외동포청을 신설했고, 인도네시아 대사 출신의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동포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대사관을 통해 알려주시면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동포 대표로 참석한 박재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은 “인도네시아에는 3만명의 한인 동포가 있으며 2000개가 넘는 한인 기업들이 100만명의 현지인을 고용해 인도네시아 경제의 한 축을 맡고 있다”며 “한인회는 동포 간 유대감을 갖는 것은 물론 현지인과 상생하는 성숙한 한인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분야에서 각별한 협력관계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며 “한인 사회는 자원 부족이며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을 가진 인도네시아와 미래 동반자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포 대표로 박 회장을 비롯해 신태용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 감독, 채인숙 시인,

김희정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인도네시아지부 사무총장, 최지혜 코이카 봉사단원, 서수하이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학생, 김광무 포스코 법인장, 이호태 중부발전 법인장, 홍우평 HLI 대표, 이주한 한인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향후 5년간 인도네시아를 이끌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날 인도네시아 제8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의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한 뒤 자신을 뽑지 않은 유권자를 포함해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 부정부패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며 “우리 국민과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많은 국민이 좋은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고, 많은 학교가 방치돼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며 자신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1951년 자카르타에서 태어난 프라보워 대통령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정부 고위직을 지낸 엘리트 가문 출신이다. 1970년 당시 엘리트 코스였던 인도네시아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 군인이 됐고, 동티모르 독립운동을 강경 진압하며 당시 철권 독재 통치하던 수하르토 대통령의 눈에 들어 그의 딸과 결혼(나중에 이혼)했다. 이후 그는 수하

르토의 오른팔로 활동하며 군 요직을 맡았다. 파푸아와 동티모르 등에서 반정부 세력을 학살하고, 민주화 운동가들을 납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일로 1998년 불명예 제대했지만 기소되지는 않았다. 해외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 2000년대 초 귀국해 사업가로 변모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에 투신해 2008년 그린드라당을 창당했다. 이후 2014년과 2019년 대선에 나섰지만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에 밀려 낙선했다.

하지만 2019년 조코위 정부 국방부 장관으로 합류했고, 지난 2월 대선에서는 조코위 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해 3번째 도전 만에 당선됐다.

이날 취임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했으며 미국과 중국, 러시아,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 40여개국에서 온 정상과 고위급 대표들도 자리했다.

출처:채외동포신문(<https://www.dongponews.net>)





Influencer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대한 세금 PMK 168 /2023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최근 기업에서 홍보용으로 인플루언서(Influencer)에게 일정 보수를 지급하고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수 지급할 때 세금에 대한 문의를 종종 받곤 한다.

PMK 168/2023 제 3조에 온라인으로 공유되는 미디어 콘텐츠의 창작자/제작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인플루언서, 인스타그램 유명인, 블로거, 블로거 및 기타 유사한 유형의 직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법인이 인플루언서, 인스타그램, 블로거 등 개인과 직접 거래를 할 경우에는 PPh21 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Influencer가 에이전트나 소속사, 기관등에 소속되어 소속사에 지급을 한다면 PPh23이 적용된다.

인플루언서 개인에 지급되는 PPh 21 세율은 아래와 같다.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은

Rp0 - Rp60.000.000	: 5%
>Rp60.000.000 - Rp250.000.000	: 15%
>Rp250.000.000 - Rp500.000.000	: 25%
>Rp500.000.000 - Rp5.000.000.000	: 30%
>Rp5.000.000.000	: 35%

PMK 168/2023을 참조하면 비직원에 대한 PPh21은 과표는 총 소득의 50%로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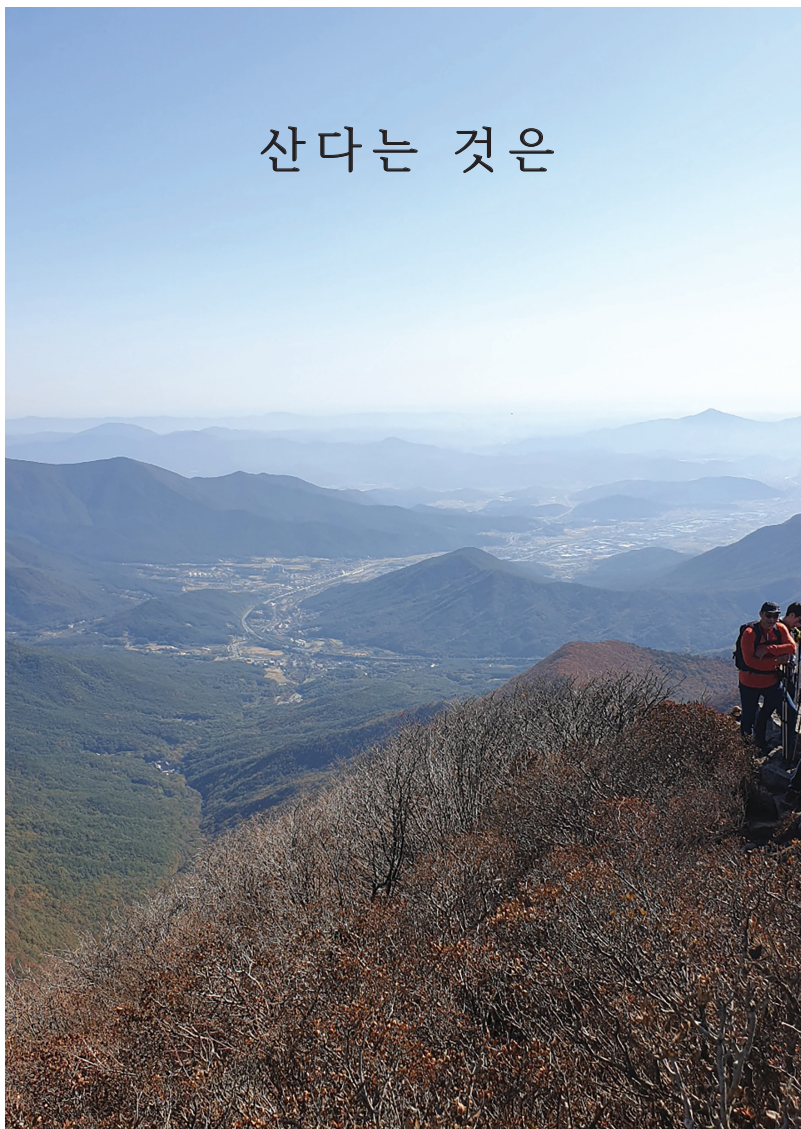
예를 들어 PT. K가 인플루언서 a 씨에게 총 5,000,000 루피아를 보수로 책정하였다면 $PPh21 = 5\% \times 50\% \times 5,000,000 = 125,000$ 루피아가 되며, a에게 4,875,000루피아를 지급하고 PPh21 125,000루피아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기 현금이외에 3,000,000 루피아의 Natura를 제공하였다면 PMK 66/2023 제 3조 1항에 근거하여 제공한 현물에 대해서도 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PPh 23은 $PPh\text{ Pasal } 21 = 5\% \times 50\% \times Rp8.000.000 = Rp200.000$ 이 되겠다.

만약 소속사 등 법인에 지급한다면 PPh23으로 2%를 공제하면 된다. <끝>

산다는 것은



어쩌면

빈 배낭 하나 채우는 일이기도 하겠다
두고 온 짐들이 뒷덜미를 더 무겁게 한다는 걸
무엇이 나를
여기까지 몰고 왔나?

Image by Rae..

글: 김주명 시인

제18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서 박재한 회장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한인회 우수사업 사례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장려상을 수상 (2024. 10. 3 세계한인회장대회)

박재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선조 발자취 살피고 되새기는 게 소명”
“다양한 사업 통해 역사 기억하고 보존하며 성찰해 미래 100년 준비”

재외동포청이 주최한 ‘2024 세계한인회장대회’ 참석차 최근 방한한 박재한(63)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은 지난 3일 행사장인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역사 탐방을 한인회의 장기 지속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인회는 2020년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출간을 시작으로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 책자’ 인도네시아어판 출간(2023년)과 한국어판 출간(2024년)에 이어 마지막 사업으로 지난 8월 1박2일 일정으로 역사 탐방을 실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재한 한인회장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재학생 등 한인 학생 25명은 스마랑 지역을 찾아 암바라와 향일의거지, 일본군이 연합국 국민을 억류했던 성요셉 성당, 수모워노 고려독립청년당 결성지 등을 돌아봤다.

박 회장은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순국선열들의 애국정신과 민족적 기개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며 “선조들의 발자취를 살피고 의미 있는 기록으로 남겨 되새기는 게 한인회의 소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인도네시아 한인 이주 104주년이 되는 ‘한인의 날’ (9월20일) 즈음에 출간한 책자 ‘인도네시아로 간 오랑꼬레아’도 소개했다. 이 책은 지난해 발간된 ‘한-인도네시아 수교 50년 기념 책자’의 한국어판이다.

인도네시아인에게 한인 공동체를 소개하기 위한 목적이 담긴 책이 인도네시아어판이라면 한국어판은 한국인에게 인도네시아 한인들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박 회장은 지난해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KT&G 상상유니브, 한인문화예술총연합회와 함께 진행한 ‘쓰담쓰담 그린런’ 행사 역시 호평이 많아 뿌듯했다고 전했다.

한인 초등학교생 등 참가자들은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플로깅(조깅하거나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회장은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 국가”라며 “다양한 사업을 통해 역사를 기억하고 보존하며 현재를 성찰해 미래 100년을 준비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포사회에서는 인도네시아 한국봉제협의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국제학교 이사장, 대한체육회 인도네시아지회 명예고문,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고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

훈장과 포장 선정의 절차는 재외동포의 경우, 우선 대사관에서 한인단체(협회, 연맹 기관) 등으로부터 각각 대상자 추천을 받는다. 동일 국가 내 추천 훈격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대사관이 종합·조정하여 추천한다. 추천 후보자가 다수인 경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5분의 3 이상을 동포사회 인사로 위촉하여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 선정하여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전심사를 강화하였다. 외교부 홈페이지 등에 추천대상자 명단, 공적개요 등을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정부포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한다.

올해 인도네시아에서는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박재한 회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김소웅(재인도네시아한인회 자문위원), 김성희(발리한국학교 교무행정교감), 김영울(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수석고문)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다.

////////////////////////////////////

이상덕 재외동포청장과 박재한 한인회장



2024 년 10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경제 비즈니스>

프라보워 정부, 장관 53명 임명.. 스리 몰야니 재무장관 유임 원내 진출 8개 정당 가운데 7개 정당 연정에 참여... 투쟁민주당만 참여 안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신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0월 21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부총리급 조정장관 5명과 장관급 48명을 임명하고, 새 내각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은 20일 취임식을 마친 후, 다음날 저녁에 새 내각을 발표했다. 새 내각의 이름은 인도네시아 국기 색상에서 착안해 “메라 뿌띠(Merah Putih, 빨간색과 흰색) 내각”으로 명명했다.

메라 뿌띠 내각은 장관과 정부 기관장 등을 합치면 총 109명에 이르는 대규모 내각이다. 이번 내각 인원 수는 인도네시아 사상 최대 규모다. 앞서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 정부 당시의 장관은 34명이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인도네시아가 크고 다양한 국가임을 고려하면 대규모 연립정부 구성이 필요하다는 정부 부처와 장관직을 늘리겠다는 뜻을 나타내왔다. 그는 여러 기존 부처 분할 등의 방식으로 식량 조정부, 인프라 조정부, 투자·전방사업부 등의 부처와 기관들을 신설했다.

이번 내각에는 프라보워를 지지하는 7개 정당 연합 소속 정치인들이 포함됐다. 한편 원내 진출 정당 가운데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의 투쟁민주당(PDIP)만 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코위 전 대통령 정부의 장관 중 거의 절반인 17명을 다시 기용해 정책 연속성·안정성을 꾀했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프라보워 내각에서 동일한 직위를 유지한 장관은 스리 몰야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 에릭 토히르 국영기업장관, 바흐릴 라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장관, 아구스 구미왕 까르파사 스미따 산업장관, 티토 까르나비안 내무부 장관 그리고 아이르랑가 하르파르토 경제조정장관 등 주로 경제 부처 수장들이다. 신설 부처인 식량조정부의 줄기폴리 하산 장관과 로산 루슬라니 투자·전방사업부 장관도 조코위 내각 장관 출신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또 자신의 소속 당인 그린드라당 간부인 수기오노를 외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이 중 스리 몰야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은 이번에도 유임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 조코위 전 대통령 등 3명의 대통령 아래서 재무장관을 지내는 기록을 세웠다. 스리 몰야니 장관은 그간 인도네시아의 난잡한 세금 제도를 개혁하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인도네시아 경제를 큰 불상사 없이 이끌어 국제 사회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고위직 출신의 스리 몰야니 장관은 특히 그간 인도네시아 재정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3% 이내 범위로 유지해 인도네시아 국가 신용등급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전 국민의 약 30%에 해당하는 8,300만 명의 아동·임산부 등에게 무상급식

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연간 약 280억달러(약 38조4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세계은행과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인도네시아 재정 건전성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스리 몰야니 장관이 유임됨에 따라 재정 전망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편 조코위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조코위 정부에서 해양조정장관과 투자부 장관을 지낸 루훗 빠자이판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조코위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으로 국무장관을 역임했던 빠라딕노는 새 정부에서 인력개발문화조정장관에 임명됐다.

아래는 각 부처 장관

1. 정치안보조정부 부디 구나완 장관 (Menteri Koordinator Politik dan Keamanan, Budi Gunawan)
2. 경제조정부 아이르랑가 하르파르토 장관 (Menko Perekonomian, Airlangga Hartarto)
3. 인력개발문화조정부 빠라딕노 장관 (Menko Pembangunan Manusia dan Kebudayaan, Pratikno)
4. 인프라지역개발조정부 아구스 하리무르띠 유도요노 장관 (Menko Infrastruktur dan Pembangunan Kewilayahan, Agus Harimurti Yudhoyono)
5. 식량조정부 줄끼플리 하산 장관 (Menko Pangan, Zulkifli Hasan)
6. 내무부 띠또 까르나비안 장관 (Tito Karnavian, Mendagri)
7. 법무부 수쁘라트만 안디 아그따스 장관 (Supratman Andi Agtas, Menteri Hukum)
8. 재무부 스리 몰야니 인드라와띠 장관 (Sri Mulyani Indrawati, Menteri Keuangan)
9. 보건부 부디 구나디 장관 (Budi Gunadi Sadikin, Menteri Kesehatan)
10. 사회부 사이폴라 유습 장관 (Saifullah

Yusuf, Menteri Sosial)

11. 산업부 아구스 구미왕 까르따사스미따 장관 (Agus Gumiwang Kartasasmita, Menteri Perindustrian)
12. 에너지광물부 바흐릴 라하달리아 장관 (Bahlil Lahadalia, Menteri Energi dan Sumber Daya Mineral)
13. 농업부 안디 암란 술라이만 장관 (Andi Amran Sulaiman Menteri Pertanian)
14. 산림부 라자 줄리 안토니 장관 (Raja Juli Antoni, Menteri Kehutanan)
15. 해양수산부 삭띠 와유 트렝고노 장관 (Sakti Wahyu Trenggono, Menteri Kelautan dan Perikanan)
16. 국영기업부 에릭 토히르 장관 (Erick Thohir, Menteri Badan Usaha Milik Negara)
17. 투자전방산업 및 투자조정청장 로산 루슬라니 장관 (Rosan Roeslani, Menteri Investasi dan /Kepala BKPM)
18. 협동조합부 부디 아리 스티아디 장관 (Budi Arie Setiadi, Menteri Koperasi)
19. 청년체육부 디또 아리오뽀조 장관 (Dito Ariotedjo, Menteri Pemuda dan Olahraga)
20. 부르하누딘 검찰총장 (ST Burhanudin, Jaksa Agung)
21. 국가정보원 헤린드라 원장 (Herindra, Kepala BIN)
22. 대통령소통실 하산 나스비 (Hasan Nasbi, Kepala Kantor komunikasi Presiden)
23. 법무 인권이민부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 장관 (Menko Hukum, HAM, Imigrasi dan Pemasnyarakatan Yusril Ihza Mahendra)
24. 공동체역량강화조정부 무라이민 이스칸다르 장관 (Menko Pemberdayaan Masyarakat, Muhaimin Iskandar)
25. 국가사무부 빠라스띠요 장관 (Prasetyo Hadi, Mensesneg)

26. 외교부 수기오노 장관 (Sugiono, Menteri Luar Negeri)

27. 국방부 사프리 삼수딘 장관 (Safrie Samsoedin, Menteri Pertahanan)

28. 종교부 나자루딘 우마르 장관 (Nazaruddin Umar, Menteri Agama)

29. 인권부 나탈리우스 뻬가이 장관 (Natalius Pigai, Menteri HAM)

30. 이민교정부 아구스 안드리안토 장관 (Agus Andrianto, Menteri Imigrasi dan Pemasyarakatan)

31. 초등중등교육부 압둘 무띠 장관 (Abdul Muti, Menteri Pendidikan Dasar dan Menengah)

32. 고등교육과학기술부 사뜨리오 수만뜨리 (Satrio Sumantri Brodjonegoro, Menteri Pendidikan Tinggi, Sains dan Teknologi)

33. 문화부 파들리 존 장관 (Fadli Zon, Menteri Kebudayaan)

34. 인력부 야시에를리 장관 (Yassierli, Menteri Ketenagakerjaan)

35. 이주노동자보호부 압둘 까디르 까르딩 장관 (Abdul Kadir Karding, Menteri Perlindungan Pekerja Migran Indonesia/Kepala BPNTKI)

36. 무역부 부디 산토소 장관 (Budi Santoso, Menteri Perdagangan)

37. 공공사업부 도디 항고도 장관 (Dodi Hanggodo, Menteri Pekerjaan Umum)

38. 주택거주지역부 마르아르아르 시라잇 장관 (Maruarar Sirait, Menteri Perumahan dan Kawasan Pemukiman)

39. 오지마을건설부 안드리 수산토 장관 (Yandri Susanto, Menteri Desa dan Pembangunan Daerah Tertinggal)

40. 이주부 이프띠파 수르야나가라 장관 (Iftitah Suryanagara, Menteri Transmigrasi)

41. 교통부 도디 뿌르와간디 장관 (Dody Purwagandhi, Menteri Perhubungan)

42. 디지털통신부 무띠아 하피즈 장관 (Meutya Hafidz, Menteri Komunikasi dan Digital)

43. 토지공간기획부 누스론 와히드 장관 (Nusron Wahid, Menteri Agraria dan Tata Ruang/Kepala BPN)

44. 국가개발기획부 라흐맛 뽀부디 장관 (Rahmat Pambudi, Menteri Perencanaan Pembangunan Nasional/Kepala Bappenas)

45. 행정역량강화관료개혁부 리니 위디안띠니 (Rini Widyantini, Menteri Pendayagunaan Aparatur Negara dan Reformasi Birokrasi)

46. 가족개발부 위하지 장관 (Wihaji, Menteri Kependudukan dan Pembangunan Keluarga)

47. 환경부 하넵 파이솔 장관 (Hanif Faisol Nurrofiq, Menteri Lingkungan Hidup/Kepala Badan Pengendalian Lingkungan Hidup)

48. 중소마이크로기업부 마만 압두라만 장관 (Maman Abdurrahman, Menteri Usaha Mikro Kecil dan Menengah)

49. 관광부 위디안띠 푸트리장관 (Widyanti Putri, Menteri Pariwisata)

50. 창조경제부 뚜꾸 리프끼 하르샤 장관 (Teuku Rifki Harsya, Menteri Ekonomi Kreatif/Kepala Badan Ekonomi Kreatif)

51. 아동환경여성역량강화부 아리파똘 코이리 파우지 (Arifatul Choiri Fauzi, Menteri Pemberdayaan Perempuan dan Perlindungan Anak)

52. 대통령보좌처 뿌뜨란토 처장 (AM Putranto, Kepala Staf Kepresidenan)

53. 내각사무처 떼디 인드라 위자야 처장 (Teddy Indra Wijaya, Sekretaris Kabinet)

<정치, 사회>

인니 니켈 수출 금지 정책 통해 고부가가치산업 전환 성공 평가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매장국으로, 니켈 원광 수출 금지 정책을 통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된다. 2009년 신흥업법을 기반으로 2020년 본격 시행된 이 정책은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 9월 26일 코트라 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세계 니켈 매장량의 약 42%를 보유한 최대 매장국으로, 2023년 기준 연간 180만 톤의 니켈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력은 전기차 배터리 산업 등 니켈 수요 증가와 맞물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니켈 원광 수출 금지는 인도네시아 자원을 현지에서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4년 처음 시행된 수출 금지 정책은 2020년 본격화됐으며, 이로 인해 중국 등 다국적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제련소를 건설해 자국 내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칭산(Tsingshan) 그룹과 같은 중국 대기업은 대규모 투자로 제련소를 설립하며 인도네시아 경제에 큰 기여를 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인도네시아가 니켈 공급을 주도하며 국제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도네시아는 전략적 위치와 높은 니켈 광석 순도를 바탕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 중심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니켈 수출 금지 이후 인도네시아는 외국인투자 유입이 급증했다. 2023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502억 달러에 달했으며, 특히 기초 금속 분야에서 큰 성장이 있었다.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내 제련소 건설에 집중 투자하며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도 인도네시아 니켈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인도네시아 내 니켈 제련소는 44개에 달하며, 이는 인도네시아 내 모든 광종 제련소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제련소 증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니켈 제품 수출액은 2020년 8억 달러에서 2023년 68억 달러로 급증했다. 이는 수출 금지 정책이 인도네시아의 니켈 관련 부가가치를 크게 높였음을 보여준다.

2023년 한국은 니켈 제품을 총 19억 달러 수입했다. 이 가운데 한국은 인도네시아에서 약 1,728만 달러 상당의 니켈 제품을 수입했으며, 대부분이 니켈 매트(HS Code 7501)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대인도네시아 니켈 제품의 전체 수입 비중은 낮으나, 니켈 매트와 같은 특정 제품군에서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한국 배터리 산업의 성장에 따라 니켈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네시아산 니켈 제품 수입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피치 솔루션(Fitch Solution)에 따르면, 한국의 배터리 제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니켈 소비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2023년 니켈 소비량은 9만 6,000톤에 불과하지만, 2030년에는 18만 1,000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니켈 수요 증가세와 함께 한국의 인도네시아산 니켈 제품 수입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인도네시아 니켈 시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데일리
인도네시아

—여기가 맛집!—

Dominica Jakarta

황지영 (자카르타 거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11월이네요. 저는 잠시 또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자카르타에서는 더워서 빨리 한국으로 피신해야겠다는 마음도 잠시, 오자마자 너무 쌀쌀해서 다시 자카르타의 더위가 그리워지네요. 가을은 지각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에 이불 속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10분만 더라며 알람을 여러 개 맞추게 되는 경험, 자카르타에서는 잊고 살았던 ‘아침 10분 만’의 느낌입니다. 몇 주 뒤면 누릴 수 없을 것만 같은 지나가는 늦가을을 잡기위해 어디 피크닉이라도 꾸역꾸역 계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번 주말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분위기 좋고 맛도 좋은 Menteng 쪽에 있는 양식집을 소개해드릴게요.

Dominica Jakarta라는 곳인데요. 일반 Ruko가 아니라 Menteng의 고급스럽고 예쁜 가정집 같은 느낌이라 외관에서 보기에다 지나갈 때마다 저기는 무슨 집이지 가보고 싶다고 늘 생각했던 곳입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와 우드 톤이 어우러진 느낌이라 더 고급져 보



이는 것 같습니다. 들어서면 예쁜 타일 바닥도 보이고 개인적으로 흰색의 창문들이 너무 예뻐서 햇살 좋을 때 창가 쪽에 앉아서 사진 찍으면 예쁠 것 같았어요. 선반에는 와인병들로 장식되어 있어서 이탈리아 식당의 힙하고 멋스러운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럼 요리 소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 드릴 요리는 Burrata Salad (270,000루피아++)입니다. 굳이 찾아먹지 않으면 식이섬유 섭취할 일이 자주 없다 보니 이런 샐러드 맛있어 보이는 식당에 가면 꼭 샐러드를 시키는 편인데요. 헤비한 음식을 먹기 전에 이런 야채류들은 소화가 되면서 칼로리를 더 많이 소모하고, 혈당 스파이크도 방지해 주기 때문에 챙겨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풀때기 주제에 가격이 조금 사악하기는 하지만 부라타 치즈의 단가를 생각하면 납득이 가는 가격이기도 합니다. 부라타는 이탈리아어로 Buttery하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크림과 같은 질감이며 풍부한 버터, 우유의 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부주머니 같은 공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맨 위에 올라가 있는 치즈를 칼로 잘라서 터뜨려서 샐러드와 곁들이면 아주 풍미가 좋습니다. 보통 부라타 치즈는 토마토와 바질과 같이 샐러드로 먹는데요. 식전에 상큼하게 부라타 샐러드로 시작해 보세요. 입맛을 더욱더 돋우어 줄 겁니다.

두 번째로 소개 드릴 요리는 Truffle Cream Gnocchi (175,000 루피아++)입니다. 여러분 뇨끼를 아시나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제비와 비슷한데요. 보통 감자 전분이나 밀가루만으로 만들지만 이탈리아 지역에 따라 시금치, 호박, 밤 가루, 빵가루와 섞기도 한다고 합니다. 쫄쫄하고 탄수화물 좋아하는 우리 한국인들이 싫어하기 어려운 메뉴라 생각이 드는데요. 확실히 트러플 크림이 베이스이다 보니, 한입 넣자마자 ‘나야, 트러플’ 하는 강력한 풍미와 향 때문에 호 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또 감자 전분을 사용하다 보니 수제비 특유의 밀가루 텁텁함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쫄쫄쫄쫄한 뇨끼 식감이 크림미한 트러플 소스와 만나서 입안에서 굴러다닙니다. 밥 투정하는 아기들도 좋아할 것 같은 자극적이지 않은 순한 맛의 요리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 드릴 요리는 Saffron Risotto (185,000 루피아++)입니다. 토핑으로 위에 커다란 새우가 올라가져 있어서 일단 비주얼이 상당한데요. 쌀알이 노란색으로 되어있어서 카레 가루를 사용했나 했지만 카레향과 맛이 전혀 나지 않아서 여쭙보니 Grana Padano라는 치즈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치즈는 우유를 써서 가열 압착하여 오래 숙성시킨 하드 치즈인데요. 제조 기준이 덜 엄격하고 만드는 시간과 숙성기간이 짧아 가격이 낮다고 합니다. 우리가 외국 마트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안에 알갱이 입자가 보이는 노란 조각 치즈인데요. 꼬릿하고 고소한 풍미를 가졌지만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가 좋아 이탈리아 요리에서 잘 빠지지않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는 “부엌의 남편”이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이 살짝 꼬릿하고 고소함이 새우와 아주 잘 어우러졌습니다. 노란 밥위에 큰 새우가 비주얼적으로도 색달랐기 때문에 이 요리도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요리는 Fior di Latte (165,000 루피아 ++)입니다. 피자인데요. 이탈리아 식당에 와서 피자를 건너뛰기엔 인지상정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 피자는 Margherita 피자에 부라타 크림만 추가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저는 부라타를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시켰는데 더 담백한 이탈리아 피자 본연의 맛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그냥 Margherita (140,000 루피아 ++)를 추천드립니다. 사실상 토마토소스, 모짜렐라 치즈, 바질밖에 없지만 쫄득한 도우와 함께 어우러져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본은 항상 이유가 있는 법. 맥주와 곁들이기에도 좋으니 2차로 분위기만 즐기러 오신 분들은 피자 한 판 시켜서 맥주와 나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이렇게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는 말이 있지만 이렇게까지 빠르게 시간이 흘러갈 줄은 몰랐습니다. 괜히 울적하고 공허하고 올해는 무엇을 했나 생각이 드는데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올해 나는 뭐 했지 생각할 때 지금이라도 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움직여 보세요. 그렇게 알찬 2024년을 마무리해 보는 겁니다. 그럼 저는 12월에 더 맛있는 집으로 찾아 뵈겠습니다. 즐거운 11월 되세요.

식당 정보 : <Dominica Jakarta>

음식 종류 : 양식

가격대 : Rp 300,000~500,000 /2인 기준

영업시간 : 월~금 오전 11:00~ 오후 11:00

토~일 오전 09:00~ 오후 11:00

주소 : Jl. HOS. Cokroaminoto No.93

RT.3/RW.5, Menteng,

Jakarta, 10310

※ Google 참고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MC 조영구



가수 이혜리

2024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송년의 밤



2024년 12월 5일(목)
오후 5시
The St. Regis
Astor Ballroom



가수 김민교



가수 이병철



카톡 ID: Korasos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지난 호에 이어

한편 뜨갈레조 사건을 보고받은 바타비아의 네덜란드 총독 반 더 채펠런(Van der Cepellen)은 디포네고로 왕자를 상대할 야전사령관으로 헨드리크 머르쿠스 드콕 장군을 선임합니다. 그는 당시 40대 중반의 활동적인 군인으로 원래 해군에 입대해 1807년부터 동인도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지만 1821년에는 수마트라의 팔렘방(Palem-bang)에서 육전으로 현지반란 진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동인도 전역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반란들이 한 두 개가 아니요. 족자에서 벌어진 저 반란을 신속히 진압하고 돌아와 주시오. 장군이 할 일이 많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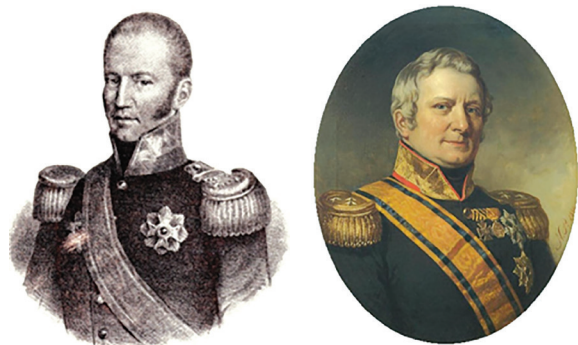
채펠런 총독이 이렇게 말할 때까지만 해도 드콕 장군은 미개한 자바 내지에서 한 두 달 안에 반란을 진압하고 당시 바타비아에 상륙해 있던 유럽문명으로 속히 돌아와 안락한 생활을 즐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의 부대가 호위하는 마차를 타고 중부 자바로 향하는 동안, 역에 도착할 때마다 날아드는 현지 전황보고서는 사뭇 심상치 않았습니다.

“족자 왕실의 귀족들이 대거 저쪽에 붙은 건 이해할만한 일이지만 왜 자바 민중들마저 대부분 반

란군을 지지하는 거요? 민중들이 술탄에게 등을 돌렸단 말ियो? 이곳 동인도에서?”

술탄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술탄의 반대편에 선 반란군의 수괴를 족자 술탄국 백성 대다수가 따른다는 동향보고를 드콕장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동인도에서 지냈던 지난 18년 동안 이런 현상을 그는 처음 보았던 것입니다. 동인도인들은 최소한 술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했으니까요.

그가 스마랑까지 도착한 것은 1825년 7월 29일이었고 그는 다음날 수라카르타를 먼저 방문했습



반 더 채펠런 총독 (채펠런 남작 고더 알렉산더 제라르 필립-좌)과 헨드리크 마르쿠스 드콕 장군(우)



<http://www.tugassekolah.com>

니다. 그의 강권에 수난 빠꾸부워노 6세는 내키지 않았지만 디포네고로 반란 평정을 위해 네덜란드를 돕겠다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콕 장군은 같은 요청을 하기 위해 망꾸느가란 봉국으로 가기 앞서 부관에게 먼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원군들이 다 모이기도 전에 끄라톤을 뺏긴다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저 느릿느릿한 인간들을 믿을 수 없으니 스마랑 주둔군 일부를 빼서 신속히 족자로 먼저 보내도록 하게.”

이 명령에 따라 껀엠시우스 대위(Kapten Keemsius)의 부대가 즉시 스마랑을 출발해 최고 속도로 끄라톤을 향해 행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족자로 가던 길목인 로그록(Logrok) 강가에 도착하자 무시요센티카(Musyosentika)가 지휘하는 디포네고로군이 벼락같이 기습을 가해 왔습니다. 습격을 예상치 못했던 네덜란드군은 지리멸렬하며 200여 명이 몰살당했고 족자 주지사에게 전달하려고 운반해온 굴텐의 군자금도 탈취당하고 맙니다. 뜨갈레조 사건 불과 며칠 후인 1825년 7월 말에 벌어진 이 전투는 디포네고로군이 거둔 첫 승리였고 이 소식이 퍼져 나가자 입대 지원자들이 몰려들면서 디포네고로군 병력은 크

게 증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칼을 들고 덤비는 반란군들에게 총든 군대가 어떻게 패배한단 말인가?”

망꾸느가란 봉국에서 망꾸느가라 2세를 만나고 있던 드콕 장군은 네덜란드군이 로그록에서 대패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기 귀를 믿지 못했습니다.

“장군, 걱정 마시오. 내가 우리 군대를 보내 손을 좀 봐 주겠소.”

허를 찔렀 차던 망꾸느가라 2세가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그는 자기 사위인 라덴 마스 수웡소(Raden Mas Suwongso)에게 여단 규모의 보병과 기마대를 주어 족자 술탄국으로 들어가 네덜란드군을 돕게 했습니다. 그러나 족자 시내로 접어들기 직전 끄라톤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깔라산(Kalasan) 지역 란두군펄(Randugunting)이라는 곳에서 그들도 디포네고로군의 기습공격을 받았습니 다. 허를 찔린 망꾸느가란의 대군이 거의 전멸당하다시피 했고 지휘관 라덴 마스 수웡소는 사로잡혀 슬라롱의 디포네고로군 본진에 끌려갔습니 다.

“당신 장인어른께 전하시오. 계속 알라의 뜻을 거스려 네덜란드를 돕는다면 망꾸느가란 봉국 역시 가만 두지 않을 거라고 말ियो.”

디포네고로 왕자는 벌벌 떨던 수왕소에게 잔뜩 겁을 준 후 풀어주었습니다. 망꾸느가란 봉국 왕실의 인사를 처형해 굳이 철천지 원수를 지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로그록과 란두군영을 비롯해 여러 전투에서 디포네고로군이 모두 이겼다는 소식에 족자 끄라톤의 왕족들은 끄라톤 침공이 임박했다고 여겨 두려움에 떨었고 급기야 브레더부르크 요새로 들어가 보호를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반면 일반 백성들은 크게 고무되어 디포네고로군의 군세는 더욱 증강되었고 저항전쟁은 자바 전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끄라톤 왕궁 안에 머물던 높은 율라마들도 궁을 나와 디포네고로군에 속속 합류했습니다.

족자 끄라톤 왕족들의 우려와 같이 디포네고로군은 이윽고 끄라톤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뜨갈레조 전투로부터 3주만의 일입니다. 이 작전에 동원된 디포네고로군 병력은 6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들 중 아부 바카르 왕자(Pangeran Abu Bakar)가 이끄는 제1대는 빠꾸알라만 봉국을 동쪽으로부터 치고 들어갔습니다. 아부 바카르 왕자는 술탄 하멩꾸부위노 3세의 아들로 디포네고로 왕자와 형제관계였죠. 그는 쪼데 강(Kali Code)의 다리를 파괴해 빠꾸알라만 봉국의 군대가 족자 술탄국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봉쇄하고 그곳의 중국인들, 유럽인들의 거주지역을 불살랐습니다. 한편 아디네고로 왕자(Pangeran Adinegoro)가 이끄는 제2대는 족자-마글랑-수라카르타를 잇는 도로와 통행세 수금을 위해 설치된 관문들을 모두 점거해 지원군들 길목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블리타르 왕자(Pangeran Blitar)가 이끄는 제3대가 족자 끄라톤을 빼앗기 위해 남쪽으로부터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디포네고로군에 항거하는 군수들의 도성내 주택들은 모두 파괴되거나 불태워졌고 곡물창고들을 공격해 탈취한 곡물을 도성 밖으로 빼냈습니다. 이로 인해 족자 침공이 끝난 후 도성 주민들은 심각한 식량난을 겪게 됩니다.

어린 술탄 하멩꾸부위노 5세는 궁전의 신료들과 함께 브레더부르크 요새로 피신했고 끄라톤 경비대장이자 네덜란드군의 소령 계급장을 단 위로네고로 왕자(Pengeran Wironegoro)는 디포네고로군을 맞아 힘겹게 끄라톤을 수비해 함락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끄라톤 점령에 실패한 디포네고로군은 도성 밖으로 일단 물러났으나 도심으로 통하는 모든 도로를 점거하고 봉쇄작전을 실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족자는 한동안 마치 죽음의 도시처럼 스산했고 지나는 사람들마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위력을 보였으니 적 지원군들을 회피하면서 전역에서 철수하시오.”

디포네고로 왕자의 명령에 따라 그의 군대는 족자 봉쇄를 7일만에 풀고 포로들과 노획물자를 가지고 슬라롱으로 돌아갔습니다. 족자 침공에는 수



바바드 디포네고로(디포네고로의 이야기)
최근 출간본에 등장하는 자바전쟁 삽화

많은 뚜먼궁, 드망(Demang) 등 높고 낮은 지위의 영주들이 협조하여 인력과 물자를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디포네고로군의 조직력을 과시했으나 정작 가장 의미가 컸을 끄라톤 점령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 디포네고로 왕자에게는 못내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디포네고로군은 이제 한껏 겁먹은 네덜란드군을 줄기차게 밀어붙이며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꺼두에서 있었던 치열한 전투에서 불키요(Bulkio)라고 이름붙인 농민군은 하지 우사만 알리바사(Haji Usaman Alibasah)와 하지 압둘까비르(Haji Abdulkabir)의 지휘 아래, 마글랑(Magelang) 군수인 뚜멍궁 하디닝랏(Tumeng-gung Hadiningrat)과 손잡은 네덜란드군을 격파하고 마글랑 군수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머노레(Menoreh)에서도 네덜란드군을 쳐부수고 머노레 군수 아리오 수모딜로그(Ario Sumodilogo)를 죽였고요. 전세는 디포네고로군쪽으로 크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자 1825년 8월 7일 드콕 장군은 양자 협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서둘러 디포네고로군에 보냈습니다. 네덜란드로서는 당장 전쟁을 멈추게 하진 못하더라도 시간이라도 벌어야 할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서한엔 대담하게도 이런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는 자들은 신분의 귀천과 지은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사면해 줄 것이다’

이 편지를 함께 열람한 고아슬라롱의 디포네고로 왕자, 망꾸부미 왕자, 끼아이 모조 등은 실소를 터뜨리며 조요꾸수모 왕자(Pangeran Joyokusumo)와 수르옌로그 왕자(Pangeran Suryenglogo)에게 강경한 거절답신을 쓰도록 했습니다.

‘네덜란드군이 무장해제하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그 길을 막지 않겠지만 계속 알라를 모욕하고 왕국을 침탈한다면 알라의 뜻에 따라 그대들에게 불지옥을 선사할 것이요. 불행한 파국을 피하기 위해 정녕 화친을 원한다면 당신의 고아슬라롱 방문을 환영하며 신께 맹세코 당신과 일행들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그 회신을 받은 드콕 장군의 얼굴이 붉그락푸르락 했습니다. 그는 슬라롱의 적진 한가운데로 걸어들어갈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동인도 네덜란드군 총사령관인 내가 저들 진영에 들어간다면 과연 저들이 날 가만히 둘 것 같은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한 적진에 내발로 걸어들어갈 수는 없는 일이요!”

그는 참모들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몇 년 후 스스로 디포네고로 왕자에게 자기 본진에 들어와 협상하자 말하게 되리라곤 그때 아직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디포네고로군의 기세가 점점 커지자 드콕 장군은 자바 바깥에서 근무하던 장교들과 부대들을 불러들여 자바 전선에 서게 했습니다. 그들 중 솔라웨시에서 불려온 노련한 반 게엔 장군(Jenderal Van Geen)은 스마랑에서 세랑 왕자(Pangeran Serang)의 부대를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세랑 왕자는 수꼬와티(Sukowati)로 진군해 까르토디르자(Kartodirja)의 부대와 함께 램방(Rembang), 블로라(Blora), 보조느가라(Bojonegara) 등의 농민군을 이끌고 있었는데 스마랑에서 벌어진 반 게엔 부대와와의 전투에서 까르토디르자가 다리에 총을 맞고 적에게 사로잡히자 수세로 몰려 마디운으로 후퇴했다가 그 후 슬라롱에서 디포네고로 왕자와 합류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한방

지난 호에 이어

생활 한의학 3

병이 생기는 원인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침입하면 몸안에 면역세포는 인체를 지키기 위해 비상사태에 돌입하지만, 면역세포 약화 혹은 기능상실의 이유로 방어에 실패하면 병을 얻게 되는 것이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화병, 우울증, 상사병 등 여러 정신병들은 정신과 마음의 이상으로 생긴 병입니다. 처음에는 수면장애, 소화불량 같은 경미한 증상으로 시작하여, 시일이 오래되면 무기력증, 면역질환, 내분비질환, 그리고 심장과 뇌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인체활동이 줄어들어 운동을 적게 해도 식습관이 나빠도 병이 생길 수 있고,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진전되면 생명까지 위협하는 질환으로 발전 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의학에서는 크게 3가지 이유로 병이 생긴다고 봅니다. 경혈이 막히고 음양오행의 부조화 그리고 정기(精氣)의 약화가 그것입니다.

1. 경혈의 막힘

한의원에 가서 왜 제가 아프냐고 물어보면 “순환이 잘 안 되는 것” 이 원인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머리가 아파도, 목이나 어깨, 허리가 아파도 순환이 안 된다고 하고, 고혈압 당뇨 심지어 암에 걸려도 순환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막히면 통증이 생기고 뚫리면 좋아진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氣血通者不痛, 氣血不通者痛” (기혈이 뚫리면 아프지 않고, 기혈이 막히면 아프다)

기혈순환은 인체 건강유지의 기본이면서 핵심요소로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순환이 안 되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히 공급이 안 될 뿐 아니라 노폐물 운반과 호르몬 대사, 그리고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대사 장애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 하게 됩니다. 통증의 원인이 진단기 계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을 가도 정확한 원인을 찾기 힘든 경우가 생깁니다. 만성통증의 경우, 순환이 안 되어 세포내에 산소가 부족하다고 알려주는 일종의 신호(=통증)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근육이나 인대는 다치고 손상되어 멍치거나 짧아지고 늘어나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순환이 잘 안 되는 원인으로 산소와 영양소,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어, 근육과 인대가 멍치고, 짧아지고, 늘어나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근육통, 담결림, 관절 통증과 활동제한, 근육과 인대의 기능저하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글: 미르한의원 원장 서상영

오장육부에 순환장애가 생기면 처음에는 기능이상으로 인한 설사, 변비, 수면장애, 감정기복, 소화불량, 빈뇨 등 가벼운 증상으로 나타나다가, 병세가 더 깊어지면 심장병, 간염, 신장염, 위궤양, 폐렴 등의 중병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음양오행의 부조화 = 인체 조절능력 실조

-사기(邪氣-바이러스)의 침입으로 폐의 양기가 기능을 못 할 경우

현필이가 비오는 날 우산이 없어, 비를 홀딱 맞고 집으로 귀가했다. 집에 돌아와 젖은 옷을 대충 갈아입고 계임을 즐겼다. 저녁이 되자 열이 뽀뽀 났고 다음 날 등교하지 못했다. 바이러스가 호흡기계통에 감염되어 점막과 신경계의 기능 이상을 일으킨 것이다. 콧물, 재채기, 식욕부진, 전신 근육통 등의 증상을 유발시키고, 인체는 바이러스를 몰아내기 위해 인체의 열을 높여, 면역세포를 활성화 시키는 반작용이 일어난다.

-간과 심장에 화(火)가 응집되어 음기가 약해지는 경우

외국노동자인 하만씨는 한국생활 5년차에 접어들었다. 고향에 돌아간 지 2년이 넘었다. 자주 가족들과 연락을 취해 보지만, 보고 싶은 가족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가족들의 생활비와 학비를 위해 당장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형편에 한숨이 나오고 가슴이 답답하다. 언제부터인지 일에 대한 의욕도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웃음도 잃었다. 친구들이 있지만 같이 어울려도 즐거움을 못 느낀다. 밖에 나가기 싫고 늘 마음이 행하다. 사장님께서 “젊은 친구가 왜 맨날 골골거리려” 하시며 호통을 치신다. 나름 잘하려고 노력 하는데,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이중으로 괴롭다.

이러다 해고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에 머릿속이 늘 복잡하다.

-비장과 위장의 양기와 음기 둘다 허하고 간기능이 떨어진 경우

다이어트는 나의 숙명이자 그림자 같은 존재이다. 성인이 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아침 점심은 굵고 가볍게 먹겠다던 저녁은 폭식으로 이어졌다. 억눌렀던 식욕이 터지면서 야식까지 먹는 게 다반사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낼 수가 없다. 안 좋은 습관이란 것을 알면서도, 똥똥해지는 몸매를 보면서, 병원검사 결과가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반복을 하고 있다. 의사선생님으로부터 중년으로 접어들면 건강에 이상신호가 올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소견을 들었다. 아직 젊어서 문제는 없을 거라 대답하자, 돌아온 대답은 뇌경색, 심근경색, 간염, 신장질환 등등 나 같은 사고와 생활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잘 나타난다는 따끔한 충고였다.

정신적 압박과 육체적 대사율이 떨어지면서 음식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불규칙적으로 유입되는 음식물의 불안정 대사로 인해 피가 탁해지고 내분비계 이상이 생겼다는 얘기였다.

-오장육부 음양의 기운이 문란해진 경우

술은 화기를 내포하고 있어 초반에는 기운이 나는듯하지만 주량을 넘길수록 정신이 흐리멍텅해지고 기운도 빠지게 됩니다. 술에는 도수가 높은 술도 있고, 도수가 낮은 술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수가 높은 술은 몸속에 들어가서 체온을 높여준다고 알고 있지만, 실은 그 현상은 잠시뿐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체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술에 취하면 일시적으로 뇌 활동이 마비되어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지만, 술이 깨면 오히려 정신이 혼탁해 집니다. 그래서 술기운을 빌리려고 또 술을 찾게 됩니다. 술은 근육량을 줄이고 기운을 소모시킵니다.

오장육부 특히 간, 뇌, 심장, 콩팥, 위장에 무리를 주어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적량의 음주는 혈액순환을 돕고 기분전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과도한 음주는 정신과 육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술을 마시는 분들은 뇌와 간(肝)에 휴식할 시간을 주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 오장육부의 기능이 저하되고 특히 신장의 음과 양의 기운이 떨어진 경우

갱년기 또한 노화로 인한 질병이지만, 음양의 부조화로 나타나는 현상(질환)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두 번의 급격한 인체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는 청소년기때 이며 또 하나는 갱년기 시기가 그렇습니다. 흔히들 여성에게만 갱년기 증상이 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시기가 여성들보다 조금 늦을 뿐이지 남성도 똑같이 갱년기를 맞이합니다.

빠가 약해지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고, 근육과 진액이 줄어들어 쭈굴쭈굴해 보이고, 기력은 쇠퇴하며 자신감도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50-60대 사이 인체의 환경이 급격히 바뀌면서,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갱년기라 일컫습니다. 호르몬 분비는 줄어들고, 근육량, 혈액량, 에너지 모두 감소하며, 몸이 약해지니 마음도 약해지면서 모든 세포활동의 저하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면역세포의 활동성 역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질병에 쉽게 노출되는 시기로 정기검진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양오행의 조화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

하지만 겁먹고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족한 것은 채워 넣고 넘치는 것은 털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식단과 운동, 사회활동, 인간관계, 직업, 사고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급격한 노화를 겪는 분이 계신가 하면, 그냥 지나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피고 외부와 내부를 함께 살피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과 넘치는 것을 체크해 나가면서, 건강을 위한 지식을 쌓고, 모르는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나에게 맞는, 나에게 최적화된, 나만을 위한, 건강관리법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나 기타 이유로 피를 많이 흘렸거나, 심하게 아프고 나서 기력이 떨어졌거나, 어떠한 이유로 불편한 증상(두통, 소화장애, 불면, 피부이상, 기침, 가슴 두근거림 등등)이 나타났다면 관리를 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좀 지나서 괜찮은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젊어서 건강을 잘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젊음의 에너지가 영원할 거라 생각하는 우리들이지만, 현실은 길지 않은 세월에 무릎 꿇고 만다는 것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고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무병장수의 길이라 믿습니다.

3. 약해지는 정기(精氣)

정기는 곧 에너지이고 힘입니다.

선천적으로 허약하게 태어나면 잔병치레가 많고 중병에도 잘 걸립니다. 나이가 들면 에너지(정기)가 떨어지니 모든 기능의 저하가 생기고, 면역세포들의 감소와 활동력의 저하로 여러 질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1) 기능저하: 온몸의 기능저하를 뜻합니다. 외부로 보여지는 활동성, 즉 언어능력, 순발력, 지구력, 민첩성 등과 내부적으로는 호르몬 양은 감소하면서, 혈관은 좁아지고 막히는 부분들이 증가하면, 순환장애로 인한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병이 나타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사회적 활동도 적어지면서 심리적 위축과 우울증, 무기력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로 인해 파킨슨병, 치매 등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면역세포 문제: 폐렴은 노인질환 1위이며 각종 암과 감염질환은 약해진 정기를 틈타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저희 인체는 매일매일 외부로부터 침입한 바이러스나 세균들, 그리고 자체적으로 변이된 세포들을 청소하고 배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작업을 원활히 하지 못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세포분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세포들이 변이되면, 암을 유발하고, 내분비를 줄여서 질병을 일으키고, 해마기능 이상을 일으켜 치매유발, 흑질의 퇴화로 파킨슨병 같은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 병이 회복되는 원리

1. 막힌 곳을 뚫어준다.
2. 음양오행의 조화를 맞춰준다.
3. 정기를 강화한다.

글을 마치며

몸의 신호를 계속적으로 무시하면 무더지면서 기능을 하지 않고, 병은 깊어지고 발전합니다. 작은 병증부터 신호를 주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가 큰 병으로 발전하면 입원이나 수술을 받게 되는데, 치료 후 일상으로 복귀를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설가 김용은 소호강호에서 “세상에 완벽한 것이란 없다. 얻기 전에는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얻고 나면 시시해진다. 다시 그것을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제대로 안다”

-투병 중이신 환자분의 일지에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안다” 라는 말이 진부할 수도 있지만, 몸 상태가 바뀐 이후로 기존의 내가 정말 편하게 살았음을 깨달았고, 여름철에도 뽕송뽕송했던 과거의 내가 부럽다. 바뀐 자율신경계에 의한 변화들은 되돌릴 수도 없고 나는 달라진 나 자신을 그대로 마주해야 한다. 그럼에도 달라진 내가 불편하니까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부디 수술과 시술의 효과가 좋기를...

죽음과 삶의 경계가 없는 전설의 땅 토라자Toraja

글: 조은아 편집위원



토라자에 가다

자카르타에서 술라웨시의 마카사르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목적지는 마카사르에서 약 290Km 떨어진 토라자. 인구 258,000여명의 산악 마을. 늘 경험해 보고 싶었던 곳이지만 쉽게 마음 먹고 나서긴 힘들었다. 멀고 험하고 또 평범치 않은 곳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도 아닌데 어찌다보니 내가 벌써 마카사르행 비행기 안에 있었다.

비행기는 단 1분의 연착도 없이 부드럽게 마카사르 ‘술탄 하사누딘’ 공항에 내려앉았다.

그곳에서 다시 시내의 버스 터미널로 이동, 8시간 버스 야간 여행이 기다리고 있었다.

(토라자 Mengkendek에 공항이 있으나 마카사르와 발릭파판에서 각각 하루 한 편씩의 소형비행기만이 운행되고 있어 대부분은 버스로 이동한다.) 야간 이동은 좌석이 일반 버스 좀 더 폭신한 Executive 버스나 침대 버스(Sleeper Bus라 불린다.)가 운행되고 있었다.

마카사르에서 가장 큰 터미널인 Regional Daya Makassar는 에어컨 시설도 깔끔한 식당 하나도 없는, 간단한 간식 정도 살 수 있는 매점만 줄지어 있는 그냥 대기실이었다.(매점도 밤이 되니 문을 다 닫아버려 물도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화장실 시설도 열악해서 물조차 마음 놓고 마실 수 없었다. 우리가 예약한 현지 여행사이트에는 출발 시간 한 시간 전부터 탑승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의 텅 빈 대기실에 사람들이 우르르 한번에 나타나면 잠시 후 버스들이 우르르 들어와 그들을 싣고 떠나고, 또 그게 반복되고. 버스 탈 사람들이 나타나서 버스를 타고 떠

나는 데 까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한쪽에는 버스 회사별로 작은 사무실이 줄지어 있는데, 우리 버스 티켓을 발매한 사무실에 문의하자, 노트에 수기로 우리 좌석 번호를 적고는 기다리면 불러준다. 첫 경험은 불안했다.

한 시간 넘도록 땀을 뻘뻘 흘리며 동네 꼬마들과 잡담을 하며 버텼다. 드디어 우리의 버스가 도착했다. 밤 10시였다. 정말 다행이었다. 침대 버스는 상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깔끔하고 안락했다.

마카사르에서 토라자를 운행하는 버스는 장시간 운행을 하다보니 운전자 이외 두 세 명의 보조원이 타고 있다. 그들은 손님들의 좌석 번호와 승차지, 하차지를 메모하고 하차지 순서에 맞게 짐칸도 분류해둔다. 돌아올 때 안 사실이지만 현지인들은 직접 전화나 WA로 버스를 예약하고 버스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길가에서 버스를 탈 수도 내릴 수도 있었다. 보조원들은 그들에게 WA를 통해 몇 분 후에 자신의 승차지에 버스가 도착하는지 일일이 알려주는 일까지 도맡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한 시간 넘도록 그 덥고 딱딱한 의자에서 기다리는 별을 서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은 터미널 대기실에 나타나 5분 만에 버스를 타고 사라졌던 이유였던 것이다.

나는 세상의 끝자락 같은 토라자Toraja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몇 번에 걸쳐 길가에서 승객을 태웠고 화장실이 딸린 상점 앞에서도 몇 차례 정차를 했다. 어두운 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 누워 졸며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밤새 킁킁하고 덜컹이는 산길을 달려 새벽 빛이

번져 오를 무렵, 마침내 또라자의 대지를 밟았다. 버스는 티켓에 쓰여진 터미널이 아닌 우리가 미리 예약한 호텔 앞에 내려주었다.

산악지대의 서늘한 새벽 공기가 코 안 깊숙이 스며들었다. 텅빈 거리에서 고요한 신비로움마저 느껴졌다. 수천년 그들만의 특별함을 간직한 그곳에 내가 있었다.

호텔 정원에는 또라자의 전통 가옥인 퐁꼬난이 줄지어 있었다. 네 개의 기둥 위에 화려한 무늬의 나무 벽, 곡선으로 말려 올라간 지붕과 앞 뒤로 긴 형태의 전통 가옥, 퐁꼬난 *Tongkonan*. 하늘을 향해 치솟은 지붕은 마치 무거운 운명을 거슬러 올라가는 영혼의 여정을 상징하는 듯했다.

퐁꼬난은 항상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단순한 전통 주거 공간이 아닌, 조상과 후손이 함께 숨 쉬는 성스러운 장소였고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담아내고 있는 공간이었다. 바라보는 것 만으로도 그 위세가 우리를 압도했다.

또라자의 신비한 장례문화 람부 솔로 *Rambu Solo*

또라자의 장례식은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선물하는 의식이다.

또라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장례를 치루지 않는다. 시체를 방부처리 한 후 깨끗한 흰 천으로 덮어 퐁꼬난 안쪽 방안에 눕혀둔다. 손님이 오면 손님을 맞고 잠도 자고 식사도 하고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며 몇 개월, 혹은 몇 년에 걸쳐 장

례식 람부솔로를 준비한다.(과거에는 시신을 사람 대하듯 음식도 제공하고 목욕도 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함께 외출하기도 했다고 하나, 요즘은 그런 전통까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 요즘은 퐁꼬난에서 생활을 하지 않고 퐁꼬난 옆에 신식 집을 지어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또라자 사람들이 천국에서 왔다고 믿었던 또라자 전통 신앙 ‘알룩 토돌로 *Aluk Todolo*’의 공동체가 행하던 ‘람부 솔로’는 거의 원형에 가깝게 보존된 가장 오래된 장례문화로 알려져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례식을 위해 산다’ 할 정도로 전통을 지키는 또라자 사람들은 람부 솔로를 위해 오랫동안 저축을 한다. 시신을 집안에 두고 살며 돈을 모아 성대한 장례식을 열게 되는 것이다.

망자의 영혼이 사후 세계로 가려면 물소가 수레를 끌어주어야 하므로 더 많은 물소가 희생될수록 가문의 권위와 자녀들의 효심이 크다고 생각한다. 뿔이 하늘로 곧게 잘 뻗은 물소 한 마리에서 열 마리까지는 작은 장례식, 열 한 마리에서 스물 세 마리까지는 중급 장례식, 그리고 스물 네 마리 이상이 되어야 성대한 장례식으로 꼽힌다. 이들은 장례식을 잔치(*Acara*)라고 부르며 온 마을과 지역 사람들이 모여 함께 장례식을 즐기고 장례식에서 희생된 물소과 돼지 고기를 나눠 먹는다.

호텔에 도착한 우리는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른 체크인을 했다. 무박의 여독을 풀기 위해 샤워를 하고 퐁꼬난을 바라보며 야외 식당에서 아침도 먹었다.





앞으로 펼쳐질 첫 경험의 기대로 피곤도 잊었던 설렜던 아침이었다.



우리가 예약한 렌터카의 사장은 다름 아닌 그 호텔의 매니저였다.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Ada acara hari ini!” (오늘 잔치가 있어요!) 멀리서 온 손님들에게 진짜 전통의 하이라이트를 보여 줄 수 있어 매우 기쁜 듯 했다. 매일 있는 행사가 아닌데 정말 운이 좋다고 했다.

“이미 만들어놔던 스케줄을 뒤로 미루고 이 잔치부터 가세요. 또라자 장례 문화의 시작은 이 잔치부터니까요.”

장례식을 잔치라 표현하는 이들에게 장례식은 진정 또 다른 시작을 축하하는 축제였다.



우리를 태운 기사는 호텔 매니저가 적어준 약도를 들고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이미 그 지역 사람들이 장례식 다 소식을 알고 있는 듯 기사가 길을 물을 때마다 서슴없이 잔칫집을 알려주었다.



잔칫집은 중앙 마당을 중심으로 앞쪽 정면에 커다란 똥고난이 서 있었다. 똥고난 이층 난간에는 예수의 마지막 만찬 그림이 붙어있는 고인의 하얀 관이 있었다. 왼쪽으로는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집과 오른쪽으로는 십자가가 크게 붙여진 방송부스가 마련되어 있었다. 사회자는 계속해서 고인과 가족, 오늘 잔치, 천국에 대해 소리 높여 연설과 기도를 했고 음악 소리와 함께 멀리서 참석한 가족들이 무리지어 입장하기도 했다.

마당을 둘러싸고 손님들을 위한 방갈로가 지어져 있었다. 장례식에 온 손님들은 방갈로에 앉아 음식을 대접받으며 함께 장례식을 즐겼다. 장례식을 위해 몇 주 혹은 몇 달에 걸쳐 손님을 잘 맞을 수 있는 장례식장을 직접 짓는다고 했다.

가족들은 새로운 손님들에게 음료와 간식을 내어주고 있었다. 장례식을 보기 위해 모인 다른 나라의 이방인들이 제법 많이 눈에 띄었다.

방갈로 앞 뒷쪽으로 몇 마리의 물소가 편안한 표정으로 묶여있었다. 오늘 이 잔치에서는 총 열 일곱



마리의 물소가 고인과 함께 떠날 예정이라고 했다. 고인이 떠난지 2 년만에 치러지는 장례식이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몇 마리의 물소가 희생된 후였다. 마당 중앙이 흥건하게 피로 물들어 있었다.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이 선물한 돼지들이 앞 뒤로 발이 묶여 대나무에 매달려진 채 마당으로 들어와 한 칸에 쌓아졌다. 사회자는 돼지가 들어올 때마다 더 목청을 높였다.

고인을 모시고 천국으로 떠날 물소의 편안한 표정과 달리, 돼지들은 있는 발버둥을 치며 소리높여 울어댔다. ‘돼지 먹 따는 소리’가 정말 저런 것이었구나,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돼지들의 울부짖음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슬픔이 가득한 절규였다.

잠시 후, 몇몇의 청년들이 들어와 돼지들을 건물 뒤쪽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중앙 마당에 박혀있는 말뚝에 물소를 매고 목을 벨 것이라고 이방인들을 데려온 가이드가 설명했다. 뿔이 하늘로 잘 뻗은 물소는 한 마리에 한화 수 백 만원에서, 흰 무늬가 있는 물소는 그 흰 무늬의 범위에 따라 그 가치가 서너배씩 올라가고 하얀 몸에 파란 눈을 한 물소는 한화로 억대가 넘는다고 했다. 피가 될 수 있으니 뒤로 조금씩 물러나란다.

햇빛에 반짝반짝 윤기가 흐르는 검은 물소 한 마리가 한 청년의 손에 이끌려 마당 중앙으로 들어왔다. 사회자의 목소리와 음악 소리가 더 커져 옆 사람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들과는 달리 이 물소는 제법 당당하게 입장을 했다. 한 치의 물러섬 없는 발걸음, 흥건한 죽은 물소들의 피 냄새에도 꿈쩍하지 않는 의연함으로 마당 중앙에 섰다. 그리고 다가온 칼잡이가 앞춤에서 날 선 칼을 꺼내어 단숨에 물소의 목을 친다.

정말 찰라의 순간이었다. 물소는 목이 반쯤 벌어진 채 피를 뿜으며 묶인 말뚝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이내 폭 쓰러진다. 그리고 다음 물소가 들어온다. 이번 물소는 얼굴과 턱 밑에 하얀 얼룩이 있었다. 제 눈 앞에서 동료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

을 텐데 이 물소 또한 당당히 걸어들어온다. 마치 이 소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운명을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그리고 또 단칼에 목이 베어져 쓰러졌다. 쓰러진 물소의 벌어진 목에서 피가 솟구쳤다.

마당 정면 방갈로 위에 신발을 벗고 앉아있던 나는 앞에 앉아 사진을 찍던 프랑스 할머니 등에 얼굴을 묻고는 놀란 가슴을 달랬다. 도저히 앞을 볼 수가 없어 벗은 신발을 끌어안고 방갈로 뒤쪽으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방금 죽은 그 소가 묶여있던 방갈로 뒤쪽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똥들이 가득이라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헤매었다. 그러다 방긋방긋 웃고 있는 아이들과 눈이 마주쳤다. 그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이 장례식을 다 같이 즐기고 있었다. 물소를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고인과 함께 천국으로 떠날, 새 시작을 축하해주고 있었다. 이들은 떠들썩한 웃음소리와 노랫소리로 고인이 떠나는 길을 축제로 즐기고 있었다. 가짜 울음소리라도 내어야 하는 우리의 장례식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놀라서 달아나는 이방인들이 그들의 눈에는 얼마나 이상하고 우스꽝스러웠을까. 내가 정작 이곳에 온 목적은 이 장례식과 장례문화를 내 눈으로 확인하러 왔던 것인데, 운 좋게 참석한 이 잔치에서 나는 줄행랑을 치고 있었다.

정말 이들에겐 죽음이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임을, 그곳에서 나는 몸소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간신히 빠져나와 차까지 걷는 길이 천 년같이 느껴졌다. 유난히 짙은 햇볕과 구름 한점 없는 맑은 하늘이 더욱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그리고 장례식을 위해 비로소 똥꼬난 안에 모셔두었던 고인의 시신을 비로소 관에 담은 이들은, 장례식 이후 똥꼬난을 담은 상여에 관을 싣고 바위를 뚫거나 동굴 혹은 절벽에 매달린 가족묘로 향하게 된다.

다음호에 계속



OB, 해저드가 났을 때 타수 계산

글: 손상현(‘자카르타의 아침’블로거)

자카르타에서의 골프 라운드에는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비록 한사람의 캐디가 4명의 스코어를 모두 기억해주는 뚝뚝한 서비스는 없지만, 북북북 1인 1캐디 시스템이 프로 선수들처럼 스스로 스코어를 기록하고, 자신의 플레이를 점검하면서 라운드를 즐길 수 있게 합니다.

여기에 골프 룰을 잘 알고, 에티켓과 매너가 좋은 동반자들과 라운드를 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즐거운 골프가 되겠죠. 해저드 근처에서 조금 더 좋은 위치에 드롭을 하는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도 있습니다. 급한 성격 탓에 티샷 순서를 가꿈 어기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비거리 욕심에 배꼽이 조금 나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골퍼들이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골퍼들의 실수가 있는데요. 골프 규칙을 잘 몰라서 의도하지 않게 틀린 스코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비록 동반자들이 내색은 하지 않겠지만 불쾌한 감정이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또한 골프장마다 로컬 룰이 있는데, 일반적인 골프 룰에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문제는 이마저도 해석이 분분해서 ‘죽었네’, ‘살았네’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사소한 내기라도 하는 날에는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논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즐거워야 할 골프 라운드에서 불신의 싸움을 띄우고, 화기에애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골프 규칙을 조금만 알아도 이런 문제는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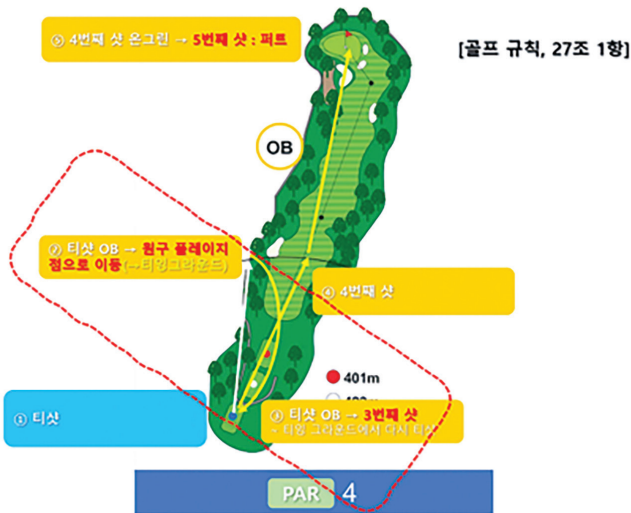
골프 스코어 계산은 기준 타수보다 더하거나 빼는 일입니다. 골프 스코어의 기준은 even par=0(18홀 합계 스코어 72를 기록한 경우)입니다. 기준 타수보다 많으면 over par, 적으면 under par라고 합니다. 파(Par)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말로 ‘동등하다 혹은 탁월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골프 스코어를 계산할 때 ‘OB와 해저드’와 관련된 골프 규칙만 알고 있어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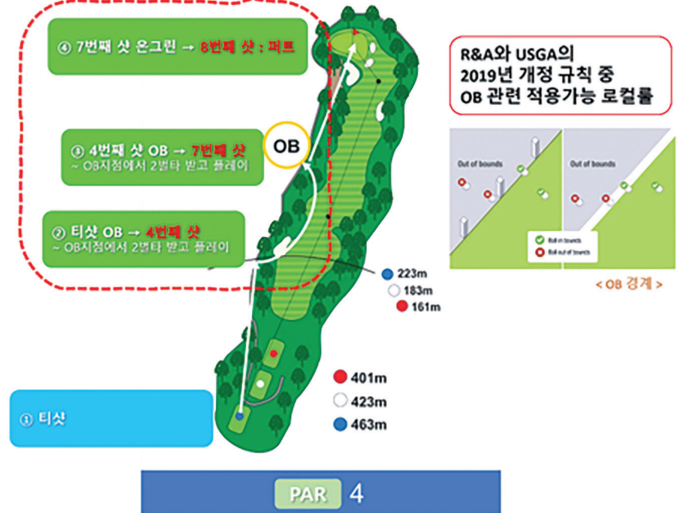
1. OB가 났을 때 타수 계산

첫 번째 그림은 ‘골프 규칙 27조 1항 기준’이며, 두 번째 그림은 ‘2019년 개정 규칙 기준’입니다.

1



2



●OB(Out of Bounds)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골프 코스의 경계를 넘어선 지역’ 이라는 뜻입니다. 골프 규칙(27조 1항)에 의하면 ‘OB가 나면 1 벌타를 받고 원구(처음 사용했던 볼)를 플레이했던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다시 샷을 해야 한다’ 고 나와있습니다. 티잉 그라운드에서 친 볼이 OB지역으로 들어갔다면, 1 벌타를 받고 티잉 그라운드에서 다시 티샷을 해야 합니다. 골프는 In bounds에서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R&A(영국왕립골프협회)와 USGA(미국골프협회)는 2019년부터 적용할 새 골프규칙을 발표했는데요. ‘라운드 중 분실구 또는 아웃 오브 바운즈(OB)가 됐을 경우에도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지 않고 해저드에 빠졌을 때처럼 공이 들어간 최종 지점에서 2 벌타를 받고 경기를 재개하는 로컬 룰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2. 해저드 지역에 들어갔을 때 타수 계산

●해저드 지역에 들어간 지점에서 1 벌타를 받고, 두 클럽 내 드롭 해서 다시 플레이를 합니다. 반드시 벌타는 받아야 하지만 친목을 도모하는 라운드에서는 조금 더 안전한 곳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매너는 항상 돋보입니다.

OB는 1 벌타 후 원구를 플레이했던 자리에서 다시 플레이를 하거나, 2 벌타를 받은 후 볼이 OB지역으로 들어간 지점에서 플레이를 함.

해저드는 대부분의 경우 1 벌타 후 볼이 해저드로 들어간 지점 또는 드롭존에서 다시 플레이. 노란색 말뚝 해저드의 경우 볼이 들어간 지점과 핀을 연결한 선상 후방의 가능한 지점에서 플레이.

3.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골프 규칙

● 페널티 구역(해저드) 안에서 플레이가 가능한 경우

만약 위험하지 않고 또 충분히 공을 칠 수 있는 라인은 별타 없이 그 자리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린에서 OK(컨시드)를 받은 경우
동반자가 ‘OK~’, ‘컨시드’ 라고 하면 한 번 더 퍼트를 한 것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의외로 컨시드를 카운트하지 않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OK, 컨시드는 홀 인이 아니라 한 번 더 퍼트를 한 것입니다.

●공을 분실한 경우

무조건 1 벌타를 받아야 합니다. 티샷 또는 세컨드 샷 이후 멀쩡한 페어웨이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공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땅에 박히거나, 러프에 깊이 잠겨서 찾을 수 없는 경우, 돌이나 스프링 쿨러 등에 맞고 멀리 도망가서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어떤 이

유로든 본인의 공을 찾지 못하면 1 벌타를 받습니다. 다만 동반자들의 동의 하에 무벌타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볼을 칠 의도가 있었던 빈스윙의 경우

어떤 샷이든 볼을 칠 의도가 있었다면 샷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이 맞지 않았으니 빈스윙을 한 것이다. 그러니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우기시면 곤란합니다. 무조건 1 벌타를 받습니다.

●볼을 함부로 만진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 든 볼을 손으로 만지면 2 벌타를 받습니다. 페널티 구역에서 드롭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자기 볼을 확인하는 척하면서 공을 들었다가 센스 있게 라인을 개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공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 동반자들이 목인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2 벌타입니다.

골프 규칙은 까다롭지만 엄격하게 지킬수록 더 즐겁고, 흥미로운 라운드가 됩니다. 다만 골프 코스의 컨디션이 늘 좋을 수는 없습니다. 동반자들 간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 예상되는 까다로운 규칙들에 대해서는 미리 상의해서 룰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네시아 문학 9집 발간 북콘서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 2024년 11월 23일(토) 오후 3시

장소 : 한인회관 2F(JL.Gatot Subroto KAV58)

주최 :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후원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문예총, 한인 포스트,
PT. CIPTA ORION METAL

날갯짓

김준규(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장)

어느날 아파트 베란다에 황조롱이 부부가 날아오더니 야금야금 등지를 틀었다.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마련한 보금자리다. 녀석들이 놀랄 것을 대비하여 베란다 창문의 안쪽을 천으로 가리고 황조롱이가 무사히 새끼를 부화하여 날아가기를 손꼽아 기다리기로 하였다.

새들에게 꿈이란 무엇일까? 바람을 타고 푸른 창공을 훨훨 날아 가는 일이 아닐까? 새들이 날개를 접는 순간, 지상에는 몸을 숨기고 쉴 수 있는 숲이 있고 나무가 있다. 먹이가 지천인 초원이 있고, 물이 있고, 화려한 꽃들이 반갑게 손짓한다.

드디어 황조롱이 부부는 알을 낳고 포란을 시작한 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어느새 눈물겨운 육아 전쟁이 시작되었다. 아기 황조롱이는 털도 없는 민둥이에다 머리만 크고 노란 입을 짹 벌리고 짹짹거릴 때는 괴물처럼 흉물스럽다. 들쥐를 잡아 온 어미는 예리한 부리로 살점을 분배하고 한 놈씩 새끼들에게 먹여주기 시작한 지 몇 날이 지났을까? 다섯 마리의 새끼 중 한 마리가 눈에 띄게 몸이 왜소한 것을 발견하였다. 먹이 경쟁에서 형제들에게 철저히 따돌림을 당한 것이다.

“아이고 저놈 죽겠네!”

아내의 놀란 목소리이다.

새들이 새끼 시절 유난히 입이 크고 노란 것은 어미새로부터 주먹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어미새가 주는 먹이를 약삭빠르게 먼저 낚아채는 놈이 생존성이 강하기 마련이다. 어둠 속에서 불빛을 찾듯 노란 새끼의 입에 먹이를 집어넣는 행위는 놀랍도록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어미새는 새끼에게 먹이를 줄 때,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크게 내는 놈한테 우선으로 먹이를 주는가 하면 힘없고 소극적인 새끼는 차순위로 밀리거나 모질게 학대하는 습성이 있다고 한다.

자연에서 터득한 어미새의 육아 방식은 실로 냉정하고 처절하다 새끼가 선천적으로 무너리이거나 후천적으로 허약한 것은 엄혹한 생존경쟁에서는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 동물에게 있어 출산 후 짧은 성장 과정을 마치고 이후의 생존 여부는 전적으로 자연환경에 맡겨진다.



어느날인가 힘센 다른 형제의 학대에 못 이겨 초주검이 된 새끼 한 마리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보이질 않았다.

“아이고, 가여워라! 어디로 갔나!”

죽은 새끼는 필경 어미가 입에 물고 내다 버렸음이 분명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러갔다. 나머지 사형제는 무럭무럭 자라났고 제법 윤기가 나고 깃털이 어미를 닮은 새끼 한 마리가 베란다 난간에 앉아 가우똥 기우똥하며 비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까마득한 낭떠러지! 답답한 둥우리에서 태어나 숨죽이며 기다린 시간, 얼마나 날고 싶은 푸른 하늘인가! 날까 말까! 두렵고 신기한 세상! 하지만 반드시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몸을 던져 사랑하고 먹이를 찾아야 하는 곳, 저 푸른 하늘을 향하여 비상 하리라!

결심의 순간을 예고하듯 덩치가 큰 첫째가 몇 번째 헛 날갯짓을 하더니 허공을 향하여 푸드덕 날아간다.

첫 번째 날갯짓은 실패로 끝났다. 아파트 화단의 단풍나무에 날개가 걸리고 어디선가 어미새 부부가 날아와 재시도를 유도하며 도와준다. 잠시 후, 둘째가 난간에서 날기를 시도한다. 어미새는 짹째 등에 업듯이 허공으로 인도하는가 싶더니 다시 비상하기 시작한다.

자연에서의 낙오는 곧 죽음이다. 세상에 갓 태어난 황조롱이의 꿈과 현실은 삶과 죽음이라는 극한의 관계로 귀결된다. 주어진 운명은 자연의 섭리대로 순응하며 살아가면 된다. 하늘이냐? 땅이냐? 그날 황조롱이 가족들은 꿈에 그리던 푸른 하늘을 향하여 힘껏 날갯짓하며 날아갔다.



노벨문학상과 번역가

글: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장

2024년 10월 노벨문학상을 한강 작가가 수상했다는 소식에 한국 전체가 들썩었다. 1968년가와 바타 야스나리, 1994년 오에 겐자부로, 그리고 2017년 이시구로 가즈오까지 일본인 노벨문학상 수상자들이 나올 때마다 한국에서는 한국 문학작품이 우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문학성을 세계에 알릴 번역 인프라가 부족해서라는 논평이 나왔다. 일본은 20세기 중반부터 일본 문학을 외국어로 번역, 전파하는 노력을 펼친 반면, 한국은 번역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지원이 뒤늦게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1992년 교보생명이 출연한 대산문화재단과 1995년 정부가 세운 한국문학번역원이 번역·출판을 지원하면서 번역서가 양과 질 모두에서 증가한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문학번역원은 1996년 설립 후 현재까지 44개 언어로 총 2천171건의 번역출간을 지원했다. 한강의 작품들 역시 번역원의 지원으로 영어, 불어 등 28개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에서 총 76종의 책으로 출간됐다.

한국어에서 인도네시아어로 직접 번역된 최초의 사례는 2012년 권비영 작가의 소설 <덕혜옹주>이다. 과거에는 영어 또는 중국어를 거쳐 중역(重譯) 방식으로 번역되어서, 원작의 뉘앙스와 의미가 소실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족자 소재 가자마다대학교(UGM) 한국어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렌찌딕피아 씨는 덕혜옹주를 번역하면서 “궁중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말이 달라 번역하는 데 어려움을 많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한국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번역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소설 <덕혜옹주>가 인도네시아어로 출판된 후 자카르타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인도네시아 독자들은 “내용이 이해가 안 가요?”, “참고할만한 역사책이 있나요?”, “한국말도 한국문화도 낯설어요.”, “한국에는 케이팝(K-Pop)만 있나요?”, “소설 덕혜옹주의 내용은 실화인가와 허구인가요? 어느 부분이 실화고 어느 부분이 허구인가요?”, “한국사람들은 민족주의가 강한 것 같아요?”, “왜 한국과 일본은 서로 미워하나요?”, “아픈 역사를 들춰서 양국 관계가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요?”, “재미있는 한국역사 소설 좀 추천해주세요?”라는 질문을 쏟아냈다. 당시 한국을 잘 모르는 인도네시아 독자들은 역사소설 속 용어와 분위기를 낯설게 느꼈고, 특히 한국과 다른 식민지 경험과 더불어 일본 관점으로 구성된 식민지 시대 역사 교육을 받아서 한국인이 가지는 일본에 대한 반감과 감정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또 한국사나 한국문화에 대해 소개하는 인도네시아어책도 부족했다.

번역가들의 중요성과 재외동포 번역가의 기여

한국 문학의 국제적 성공을 위해서는 언어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번역가들이 필수적이다. 한국은 현재 제3세대 번역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어릴 때부터 한국어와 외국어 모두에 능통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니고 있다. 특히 재외동포 번역가들은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여기에는 해외에 사는 한국인과 더불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번역가도 포함한다. 어린 시절부터 이주하여 두 언어와 문화를 깊이 이해한 이들은, 자신이 속한 다문화적 정체성을 활용해 원작의 미묘한 뉘앙스와 문화적 배경을



정확히 번역해서 원작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다.

한국 문학의 번역은 크게 세 세대로 구분한다. 1세대는 1990년대까지로 외국어에 능통한 한국인 교수나 문학인이 중심이 되어 번역을 주도하던 시기이다. 이들은 번역의 초석을 다졌으나 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세대는 외국어와 한국어에 능숙한 외국인 교수들이 한국인 번역가들과 협력하여 작업한 시기로, 문화적 이해와 언어적 능력을 결합해 작품을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었다. 3세대 번역가들은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며, 도착어로의 표현 능력이 뛰어나 세계 문학의 중심에 한국 문학을 올려놓았다.

재외동포 번역가의 대표적인 사례는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 등을 번역한 스페인어 번역가 윤선미 교수와 포르투갈어 번역가 임운정 교수이다. 윤 교수는 학창 시절을 아르헨티나에서 보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대에서 스페인 문학을 전공했고, 스페인 마드리드 콤플루텐세대에서 중세 스페인 문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 귀국한 뒤에는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에서 서어권 전문 교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운정 브라질 상파울루주립대 교수는 '채식주의자'를, 김지윤 상파울루대(USP) 한국어문학과 교수는 '소년이 온다'를 각각 포르투갈어로 번역했다. 임 교수는 10대 시절 브라질에 이민 간 1.5세대. 프랑스어권의 대표적인 한국문학 전문 번역가로 알려진 최경란은 한국에서 불문학을 전공한 뒤 프랑스에 유학 후 파리에 정착했다. 사할린 출신의 이상윤 번역가는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를 러시아어로 번역했다.

문화 전쟁 시대의 번역과 문학 교류의 역할

현대를 문화전쟁 시대라 부른다. 각국은 자국의 문화와 역사를 지키고, 세계에 알리는 과정에서 자국의 입장을 대변할 문화 콘텐츠를 생산해 확산시킨다. 한국은 대중문화에서 시작한 한류가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며 문화강국의 면모를 다지고 있다. 특히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번역가들의 창의적인 번역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인도네시아에서 공부하고 활동하는 한국인과 한국에서 유학하거나 취업해 활동하는 인도네시아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한국어-인도네시아어 번역을 위한 훌륭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가독성이 좋고 한국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양질의 책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Hyaang, the yoga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가선생 michelle입니다.

나이가수록 허리와 등의 유연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요,
뒤로 구부려주는 스트레칭 동작 Backbend로 등의 유연성을 높여 볼게요.
스트레칭 할준비 되셨지요? 5분입니다, 딱 5분요! 자, 일어나실게요. 옷차...
목표동작; Sarpasana(snake pose)를 향해서 고고!
“오늘 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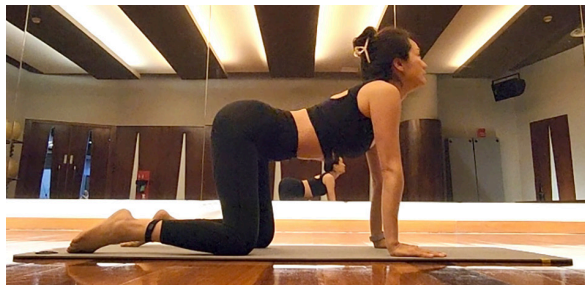
Phase 1



1. cat po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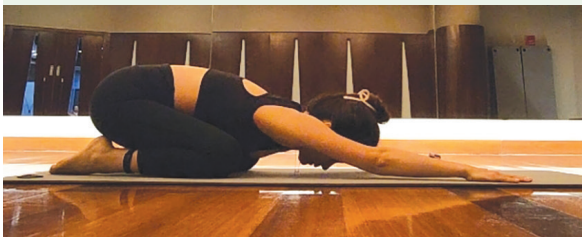
cat 앤 cow 동작으로 몸을 풀어줄게요

- ◆손으로 매트를 움켜잡듯이 밀착
- ◆팔은 일직선으로
- ◆등가죽, 뱃가죽 달라붙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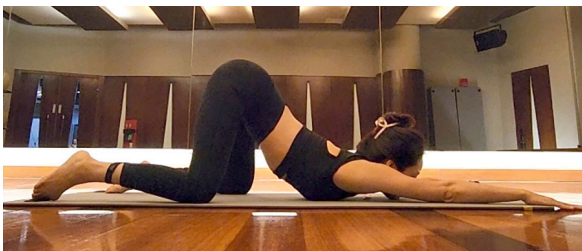
2. cow pose

Phase 2



<<1. child pose

- ◆상체를 최대한 낮고 길게 뻗으세요
- ◆엉덩이도 낮게
- ◆어깨와 귀는 멀게



2. puppy pose

- ◆child pose에서 팔로 앞으로 쭉,
- ◆엉덩이는 쳐들고, 턱을 바닥에 대요



3. spinx po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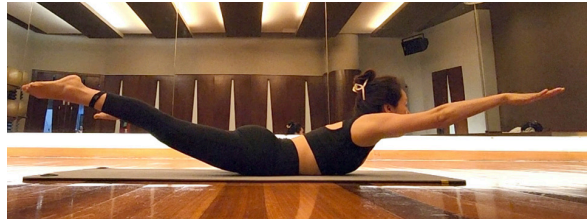
- ◆puppy pose에서 팔꿈치 고정,
- 몸축 앞으로
- ◆팔꿈치 직각

Phase 3



<<1.팔을 앞으로 뻗으며 상체 Up

- ◆손가락 끝까지 힘
- ◆들어쉬며 up/내쉬며 down x 4회



2. 하체 Up

- ◆손으로 바닥 짚고 고개 들어요
- ◆엄지발가락 끝까지 힘, 엉덩이를 꼭 조이며
- ◆들어쉬며up/ 내쉬며 down x 4회

3. 상, 하체 동시에 up

- ◆손가락 끝, 발가락 끝에 힘
- ◆엉덩이 꼭 조이고
- ◆팔다리를 흔들기 x 10회

Phase 4



<<목표동작인 snake pose에 도달!

- ◆등뒤로 손까지, 가슴을 최대한 들어올리며,
- ◆등을 아치로 만들고,
- ◆양발의 엄지발가락을 붙인채 그대로 유지
- ◆내쉬며 몸을 내려놓아요.

와...오늘도 해내셨습니다!!
 보기보다는 어렵지만 그래도 할 만하지요?
 아무리 바빠도 5분은 시간 있으시죠?
 하루 5분 투자로 유연하고 젊은 몸같이 만들어 보아요!
 여름날같이 싱그럽고 더 그윽한 향기를 내뿜을 향기님들을 응원합니다!
 나마스떼~

Yoga instructor,
 Michelle Yoga class <Hyaang, the Yoga>
 운영그룹 및 개인수련 문의는 카톡 'tidapapa'로 문의주세요





인사성 바른 우리 발리

이름 : 발리(BALI)

나이 : 1살 반

견종 : 말티푸

성격 :

- 호기심은 많지만 겁이 더 많아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견생을 추구함
- 사료도 장난감도 신상을 좋아함

큰집사: 이충실, 작은집사: 발리맘 윤(자카르타 거주)



기타 :

- 이름은 발리(BALI)이지만 발리엔 한번도 가보지 못한 자카르타 태생 강아지.
- 강아지가 허용되는 쇼핑몰이나 공원으로 산책가는 것을 좋아함.
- 혹시 우리 발리를 보시게 된다면 다가와 인사해주세요! 발리는 사람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Dear My Bali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면, 귀여운 꼬리 흔들기와 두 손 들기로 우리를 맞이해주는 발리!

발리와 첫 만남은 그리 특별하지 않았지만, 어느새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어. 사람을 무척 좋아해서 사람들이 귀엽다고 먼저 다가와줄 때, 발리는 정말 행복해 보인단다. 다른 강아지나 고양이를 만나면 늘 먼저 짚어 아빠, 엄마가 당황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겁보인 너를 아니까 그럴 때조차도 너무 귀여워.

산책을 하다 보면 발리의 친아빠, 푸들 DNA가 발동하는지, 새만 보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쫓아가는 본능에 충실한 너.

처음에는 아빠가 계속 키우자고 졸라서 키우게 되었는데, 이제는 엄마가 발리 없이는 못 살지. 발리는 씩씩하게 혼자서도 집에 잘 있지만, 정작 엄마가 분리불안이 생긴 것 같아. 발리야, 너를 만나고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더 행복해졌는지 몰라.

언제나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소중한 반려견 발리, 늘 건강하고 행복하자! 사랑해!



진짜 운전면허증 SIM Asli

남기훈 (PT HWA SEUNG INDONESIA)



나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두 국가에서 진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진짜 운전면허증이란, 정식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치르고 합격 점수를 받아 취득한 운전면허증이다. 한국에서는 진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가 어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두가 진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에서 가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내가 이야기하는 가짜 운전면허란 진짜 운전면허와 반대로, 정식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지 않고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직장 생활을 한 지 1년쯤 됐을 때, 운전이 하고 싶어졌다. 차량을 구매하기 전, 운전면허증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주변 지인들에게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방법을 물었다. 나는 진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방법을 물었지만, 모두 가짜 운전면허증에 대한 방법만 알려줬다. 왜 가짜 운전면허만 있냐고 관공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인도네시아에서 운전면허는 각 지역 경찰서의 주요 수입원이라고 한다. 각 지역 경찰서가 브로커에게 정해진 상납금을 제시하고, 브로커는 그 가격에 일정 마진을 덧붙여 운전면허를 알선한다고 한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한국인은 브로커에게 구매한 가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경영을 최우선으로 내건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는 지인들도,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도 돈을 주고 가짜 운전면허증을 구매했다. 그리고 모두가 가짜 운전면허를 진짜 운전면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가짜 운전면허증에 대해 본능적인 거부감이 들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싶었다. 평소 업무적으로 알고 지내던

관공서 업무를 담당하는 에이전트에게 진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관해 물어봤다. 내가 저렇게 면허를 취득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오해했는지, 수수료를 적게 받는 친한 브로커를 소개해 주겠다는 답변밖에 받을 수 없었다. 한국인 지인을 통해서도 방법을 찾기 어려울 것 같았다. 하는 수 없이 인도네시아 현지 지인들에게 진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물어봤다. 인도네시아 현지 지인들도 돈을 주고 운전면허증을 구매했고, 필요하면 브로커를 알아봐 주겠다고 답했다. 나는 진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싶다고, 취득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현지 지인들은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내게 알려줬다.

진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싶다면, 각 지역 경찰서에 위치한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해 시험을 봐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거주하던 지역에 있는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지역 경찰서 위치를 알려줬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 날, 나는 당시 거주하고 있던 지역 경찰서를 찾아갔다.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은 외국인이 면허 시험장 접수 창구에서 어슬렁거리는 것을 신기해하는 분위기였다. 경찰서 직원이 내게 다가와 무슨 일로 왔느냐고 친절하게 물어봤다. 나는 운전면허를 신청하러 왔다고 했다. 담당 직원이 운전면허 접수 서류를 안내하면서, 접수에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했다. 첫 번째는 증명사진, 두 번째는 신체검사 증서였다. 경찰서를 여러 번 방문하기가 어려워, 주변에서 증명사진 촬영 및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물었다. 내게 서류를 안내했던 직원은 경찰서 바로 맞은편에서 필요한 서류 두 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줬다.

경찰서 건물 바로 맞은편에 증명사진 및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었고, 1시간 정도 만에 두 가지 서류를 준비할 수 있었다. 이후 경찰서에 돌아와 운전면허 신청서를 작성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접수 창구에 제출하면서, 경찰서에 오기 전 미리 가져온 여권, 키타스(KITAS), 한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함께 제출했다. 접수 창구 직원은 내가 제출한 서류를 모두 복사한 후 다시 돌려줬다. 그리고 오늘 필기시험을 볼 거냐고 물었다. 경험 삼아 보겠다고 답변했다. 소정의 인지 비용을 내야 한다고 해서, 인지 비용을 지불하고 접수 창구 의자에 앉아 있었다. 10분쯤 지났을 때, 필기시험을 담당하는 직원이 내게 다가와 지금 바로 시험을 보겠느냐고 물었다. 지금 바로 보겠다고 답변했다. 내 답변을 들은 직원은 나를 허름한 사무실로 안내했다. 허름한 사무실에는 컴퓨터가 여러 대 있었고, 나는 원하는 자리에 앉아 시험을 보면 된다고 했다. 시험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제일 시원해 보이는 자리에 앉아 시험을 봤다. 시험은 인도네시아어로만 되어 있었고, 결과는 예상대로 불합격이었다. 시험에 떨어진 후, 시험 감독관을 통해 어떻게 필기시험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었고, 유튜브에 운전면허 시험 관련 강의가 있으며, 그 강의를 여러 번 들으면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알려줬다. 집으로 돌아와 운전면허 시험에 전념했다.

1주일 후 다시 면허 시험장에 갔다. 70점이 합격선이었는데, 72점으로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다. 1주일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한 덕분인지 합격 점수를 보고 기분이 무척 좋았다. 경찰서 직원들도 외국인이 시험장에 온 것도 신기한데, 필기 시험까지 합격한 것에 놀란 눈치였다. 카메라맨이 와서 내 사진을 찍었다. 비록 필기시험이었지만,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필기 시험장에 있던 직원이 내 운전면허 신청서에 필기시험 합격 도장을 찍어줬다. 처음 필기시

험을 접수했던 접수 창구로 가서 실기시험을 접수했다. 필기시험과 동일하게 소정의 실기시험 인지 비용을 지불했다. 비용을 지불하고 10분 정도 기다리니 실기시험 담당 경찰관이 나를 실기시험장으로 안내했다. 한국에서 운전 경력이 몇 년 있었기 때문에 실기시험에는 자신이 있었다.

시험 장소는 경찰서 내에 위치한 공터였다. 한국 처럼 별도의 시험 장소가 세팅되어 있지 않았다. 내가 도착하자 시험감독관은 공터에 교통 유도용 꼬깔콘을 세우기 시작했다. 꼬깔콘 간의 간격은 시험감독관 마음대로였다. 시험감독관은 눈대중으로 꼬깔콘을 모두 세운 이후 내게 시험 규칙에 대해 설명했다. 시험 항목은 단순했다. 일자 코스, S자 코스, 주차 총 세 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 특이한 점은 직진으로 일자 코스, S자 코스, 주차 세 가지 시험 코스를 모두 통과한 이후, 후진으로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간에 기어를 바꿀 수 없었고, 교통 유도용 꼬깔콘을 한 번이라도 건드리면 탈락이라고 했다. 시험감독관이 세운 교통 유도용 꼬깔콘이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큼 촘촘했기 때문에 직진으로 코스를 통과하고 후진으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게 불가능해 보였다.

시험감독관에게 시험 규칙에 대해 재차 물었다. 시험감독관은 맞다고 답변했다. 나는 시험감독관에게 시범을 한번 보여 주면 군말 없이 시험을 보겠다고 했다. 시험감독관이 시험용 차량에 탑승했다. 시험용 차량은 한국으로 치면 봉고차와 비슷한 종류였다. 시험감독관은 직진 기어로 시험 코스를 모두 통과하고,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 기어를 후진으로 바꿨다. 후진으로 운전한 지 몇 초 지나지 않아 교통 유도용 꼬깔콘을 건드렸다. 탈락이었다. 머쓱하게 웃으며, 바꾸면 안 된다고 하던 직진 기어와 후진 기어를 여러 번 변경하고 교통 유도용 꼬깔콘을 여러 번 건드린 후에 출발 지점으로 돌아왔다. 나는 시험감독관에게 시험 규칙에 대해 다시 물었다. 시험감독관은 썩

웃으면서 맞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시험을 보겠다고 했다. 내 예상대로 직진으로 갈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후진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 유도용 꼬깔콘을 건드렸다. 시험감독관은 불합격이라며 차에서 내리라고 했다.

불합격 통보를 받자, 시험감독관은 시험을 치렀던 공터에 붙어 있는 사무실로 나를 안내했다. 도착한 사무실 책상 위에는 탈락이라는 붉은색 도장이 찍혀 있는 내 운전면허 접수증이 있었다. 시험 보기 전에 이미 도장을 찍어 놓은 것 같았다. 시험감독관은 붉은색 도장이 찍힌 접수증을 돌려주며, 나를 경찰서 본관 건물 2층에 있는 한 사무실로 안내했다. 내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중년쯤 되어 보이는, 옷을 말끔히 차려입은 남자가 내게 의자에 잠깐 앉으라고 했다. 직급이 높은 경찰관 같았다. 그 경찰관은 내게 간단한 안부를 묻은 후, 친근한 미소를 보이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운전면허 시험을 접수할 때 필요한 비용은 전부 지불했다고 대답했다. 그 경찰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몇 가지 다른 의미 없는 이야기를 더 하다가 200만 루피아를 주면 면허증을 발급해 주겠다고 말했다. 나는 다소 흥분한 목소리로 200만 루피아를 쥐야 면허증을 주는 거냐고 되물었다. 그 경찰관은 살짝 흥분한 내 얼굴을 보고 놀란 건지, 그동안 봐왔던 한국인에게서 볼 수 없었던 반응에 놀란 건지 모르겠지만, 당황한 표정을 보이며 방금 내가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하고 지금 당장 본인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했다.

사무실에서 나와 1층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 접수장으로 갔다. 재시험 접수를 하고 싶다고 접수창구에 물어보니, 시험을 본 당일에는 재시험 접수가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다음 주 쉬는 날에 다시 방문하기로 마음먹고 경찰서를 나섰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다. 출근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인도네시아에서 잔뼈가 굵은 한국인 총괄 부장님이 나를 불렀다. 그리고는 어제 경찰서에서 회사

로 연락이 왔다면, 경찰서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경찰서에서 무슨 이유로 회사로 전화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 신상을 알고 회사로 연락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다. 같이 운전면허 시험장에 갔던 운전기사가 경찰에게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이야기한 것 같았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총괄 부장님께 되물었다.

총괄 부장님께서 설명하시길, 해당 지역 경찰서에서 회사 HRD 현지 매니저에게 전화를 했고, 화를 내며 한국인 관리를 똑바로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어제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 내가 경찰서에서 큰소리로 200만 루피아를 쥐야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거냐고 되물었던 것이 화근이 된 모양이었다. 내 행동에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들을 총괄 부장님께 설명했다.

이야기를 다 들으신 한국인 총괄 부장님은 내게 또 면허시험을 보러 갈 것냐고 물었고, 나는 그렇다고 답했다. 운전면허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경찰서에 다시 가지 말라고 하셨다. 나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 다만, 총괄 부장님께 직급이 높아 보이는 경찰관에게 200만 루피아를 제시받았던 일에 대해서는 경찰서 내에서 일절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 다음 주에 경찰서에 다시 방문했다. 이전과 동일하게 접수처에 실기시험을 접수했다. 시험감독관은 다시 공터에 교통 유도용 꼬깔콘을 세우고 시험을 보게 해줬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후진기어를 넣고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다 교통 유도용 꼬깔콘을 건드렸다. 불합격이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불합격 통보를 받자, 시험감독관이 나를 공터 옆 사무실로 안내했다. 어제와 같이 시험 접수증에는 붉은색 불합격 도장이 미리 찍혀 있었다. 붉은색 도장을 보자, 이미 결과가 정해진 시험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화가 났다. 왜 불합격 도장이 미리 찍혀 있냐고 따져 물었다. 시험감독관은 대답이 없었다.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돌아



가려는 순간, 젊은 경찰관 하나가 나를 멈춰 세웠다. 인도네시아 사람도 운전면허증을 돈 주고 사는데, 내게 왜 계속 시험을 보러 오냐고, 돈 주고 사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나는 돈 주고 면허를 사는 게 맞냐고 되물었다. 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원래 돈을 주고 면허를 사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원래 그렇다는 말을 들을수록 가짜 운전면허증에 대한 내 본능적인 거부감은 강해졌다. 다음 주 시간 되는 날에 시험을 다시 봐야겠다고 결심하고 경찰서를 나섰다.

그 다음 주에 다시 시험장에 갔다. 시험장 접수 창구를 가니, 여러 번 방문해서 그런지 인사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아침 먹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고, 친근하게 블랙커피 한 잔 마시겠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접수 창구에 가서 실기시험을 접수하고, 다시 실기시험을 보는 공터로 갔다. 시험감독관은 나 한 사람을 위해 여러 번 교통 유도용 꼬갈콘을 세워서 그런지, 처음 봤을 때와 다르게 노련하게 교통 유도용 꼬갈콘을 세웠다. 꼬갈콘 간의 간격도 제법 일정해진 것 같았다. 하지만 시험 결과는 전과 같이 후진 기어를 놓고 후진하는 도중에 꼬갈콘을 건드려 탈락했다.

시험 보기 전 회사 울타리 내에서 회사 차량으로 운전 연습을 장시간 해와서 그런지, 처음 시험 봤을 때보다는 이동 거리가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합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세 번째 시험에 불합격하고 나니, 회사 총괄 부장님이 비용을 대납해 주겠다고 했을 때 그냥 알겠다고 할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면허

시험장에 왔을 때는 가짜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 번째 시험에 떨어지고 나니,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 번 시험을 치르는 동안 시험장에서 실기시험을 본 사람이나 혼자였던 걸 생각해 보면, 돈 주고 면허증을 사는 게 진짜 인도네시아 면허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 고민을 하며 돌아가던 길에, 내가 시험 보는 걸 지켜보던 젊은 경찰관 친구가 내게 말을 걸었다. 그 친구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경찰서에서 실제로 자동차 운전면허 실기시험을 봐서 합격자를 본 적 있냐고 물었다.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어떻게 합격했냐고 물었다. 젊은 경찰관이 답하기를, 지금 내가 시험을 보는 경찰서는 정해진 규격 없이 시험감독관이 교통 유도용 꼬갈콘을 마음대로 두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격했던 사람은 10번 정도 시험을 보러 온 사람이었고, 후진으로 돌아오는 코스 절반 정도 온 후에 교통 유도용 꼬갈콘을 건드렸지만 시험감독관이 불합격이 아닌 합격 처리를 해줬다고 했다. 물론 인도네시아 국적이었다. 합격했던 사람이 있다고 하니 희망이 보였다. 나는 이후에도 회사 울타리 내에서 장시간 운전 연습을 했고, 시간이 될 때마다 실기시험을 보러 갔다. 다섯 번째 시험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다.

지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운전면허증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한국인이든 인도네시아 현지인이든 다들 나를 괴짜처럼 바라본다. 아직 인도네시아에서는 가짜 운전면허증이 진짜 운전면허증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작은 씨앗을 뿌렸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 그리고 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나타나서 씨앗을 계속 뿌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언젠가는 진짜 운전면허증이 인정받는 세상이 좀 더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내가 인도네시아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정상이 정상으로 인정받는 게 아닌, 정상이 정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2. 제조업 중심의 한국기업 투자 급증: 발전기(1986~2002년)

1) 노동집약산업에 이어 기술집약산업 등 제조업 투자 진출

1988~1992년 기간에 한국 기업의 대인도네시아 투자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특히 섬유, 봉제, 신발, 완구 등 노동집약산업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의 저임금, 풍부한 자원 및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에 힘입어 한국기업의 현지 투자가 급증했다. 이는 이중과세방지협정(1988년 11월), 투자보장협정(1991년 2월) 등을 통한 체계적인 제도 구축에도 힘입은 바 크다. 1990년대 초반에 기술집약산업인 전자산업과 바이오산업의 진출이 시작되어 오늘날 LG전자, 삼성전자, CJ 등과 같은 투자성공 사례를 낳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1980년대 후반 봉제와 신발 등 노동집약적 한국기업이 동남아 국가를 투자 대상으로 주목한 이유는 원화의 절상, 임금 상승, 노사분규, 선진국과의 통상마찰 등 국내외적 경영 여건의 나빠졌기 때문이다. 당시 동남아 국가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노동력이 풍부하고 비교적 임금이 낮았을 뿐 아니라,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혜택을 받고 있었던 만큼 한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의 투자가 몰렸다. 하지만 영세한 자본의 중소기업이 다수 진출하면서 현지 언어와 문화의 이해 부족과 장시간 노동, 미숙한 인력관리 등으로 현지 사회와 갈등을 빚었다. 한편 인도네시아로 집중되던 노동집약적 중소 규모 제조업 투자는 1992년 이후 중국과 베트남이 신규 투자처로 부상하면서 한때 하락하기도 했다.

1990년 초부터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점차 기술집약산업의 투자가 이루어진다. 도자기 생산 공장인 한국세라믹(한국도자기)과 피아노와 악기

제조회사인 삼익인도네시아(삼익악기)가 각각 설립됐다. 이어 LG전자, 삼성전자, CJ 등과 같은 전자와 바이오 산업이 진출해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 시장에서도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1993년 이후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급등하자, 해외투자 자본의 성격도 좀더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전환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석유화학, 조립금속 등 ‘중간기술 제조업’과 철강, 자동차 등 기간산업 분야와 플랜트 건설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부문에도 대거 참여했다. 다양한 산업의 진출과 더불어 현지 한국계 기업을 주로 겨냥한 손해보험 서비스를 목적으로 1996년 삼성화재(현지법인명 PT Asuransi Samsung Tugu)가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이어 1997년 KB손해보험(KB Insurance)과 1998년 메리츠화재(Meritz Korindo Insurance) 등이 각각 진출한다.

1990년대 들어 수출 호조로 인도네시아 경제는 내수도 증가하고 주식시장과 부동산 부문 모두 활황을 보였다. 하지만 경기 과열에 따른 물가 상승과 부동산 시장 등의 거품이 발생했고,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겪으면서 경상수지 적자를 면치 못했다. 인도네시아는 경상수지 적자로 외채가 증가했지만 정확한 외채 규모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금융과 자본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 경상수지 적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자국의 통화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정책 당국은 조정을 주저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외환위기를 맞으며 1997년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 구조조정계획 절차를 밟게 됐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동시에 발생한 외환위기로 현지 한국계 기업들은 위기를 맞는다. 1997년 경제 위기와 1998년 이후 민주화 과정의 정치적



글: 신성철(<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 저자)

회적 불안정은 한인 사회 존속을 일시적으로 위협했다. 특히 1998년 5월 폭동 때는 5천여 명의 한인들이 비상 탈출해야 하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가족을 귀국시킨 뒤에도 많은 한국계 기업의 임직원들이 현지에서 근무하면서 인도네시아 직원들과 함께 회사를 정상적으로 가동했다. 이때부터 인도네시아 관리들이나 현지인들은 한국에 대해 어려울 때 도와준 진정한 친구라고 여긴다.

2) 25만명 고용을 창출한 한국 신발업체

신발산업 가운데 스포츠화의 경우 1970년대는 일본, 1980년대는 한국, 1990년대 이후에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중국이 전 세계 생산기지 역할을 맡고 있다. 1980년대 후반기 이후 한국 사회의 민주화에 따른 노동쟁의 증가, 가파른 원화 절상 및 임금 상승에 따른 제조비용 상승으로 채산성이 급격하게 악화하면서 국내 노동집약적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을 모색하게 됐고, 대상지로 동남아와 중국이 부상했다. 당시 한국과 대만의 신발제조업체들이 대거 동남아와 중국 등지로 생산기지를 이전시킨 배경에는 나이키, 리복, 아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의 빅바이어들이자 브랜드 마케팅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인 동남아와 중국 등지로 글로벌 밸류체인을 재편했다. 인도네시아는 1990년 전후 한국의 중소자본이 가장 선호한 투자대상국으로, 짧은 기간 동안 노동집약산업을 중심으로 ‘처음이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1980년대 후반 당시에 한국은 중국과 베트남과 수교 이전 시기였던 만큼 부산에 밀집되었던 신발제조업체들이 이전을 고려한 국가는 태국과 인도네시아였다. 앞서 인도네시아에는 1960년대 후

반부터 원목개발과 합판제조, 종합상사, 건설 등 한국 기업들이 이미 현지에 진출해 있었던 터라 인도네시아에 직접투자는 진출에 따른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작용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계 신발제조업체로서 첫 투자회사인 코린도그룹의 신발사업부 가루다인다와(PT. Garuda Indawa, 일명 이글)가 1980년 중반기에 가동을 시작해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던 만큼 해외투자에 경험이 없었던 한국 신발업체들은 가루다인다와의 선례를 공유할 수 있었다.

한국계 신발제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은 1985년 가루다인다와가 첫 테이프를 끊은 이후,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까지 성화(Sung Hwa Dunia), 프라타마(Pratama Abadi Industri), 동양(Dongyang Indonesia), 동조(Dong Joe Indonesia), 태화(Tae Hwa Indonesia), 스타윈(Starwin Indonesia), 도손(Doson Indonesia), 코리네시아(Korinesia) 금강제화 등이 대규모 생산설비를 갖추고 주문자상표 생산방식(OEM)의 체제를 구축했다. 초창기 진출한 신발기업들은 동양을 제외하고 모두 자카르타 외곽 땅그랑 지역에 공장을 세웠다.

1992년 한국이 중국과 베트남과 수교하면서 두 나라는 한국의 주요 투자지로 부상했다. 이를 계기로 글로벌 신발산업에 지각변동이 일어났고, 인도네시아 신발업체가 어려움에 직면한다. 었친 데 덮친 격으로 1993년 이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인상율이 연간 10%를 상회함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비 절감 효과가 낮아진 동시에 한국에서 더 가까운 중국과 베트남이 대안 생산기지로 부상했다. 하지만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의 생산원가가 급속도로 인상되면서 중국

에 진출했던 한국계 기업 중 일부는 한국으로 U-턴하거나 인도네시아로 재이전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계 신발제조 투자기업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반뜰주 땅그랑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땅그랑은 수도권 대표적 한인 집중 거주지로 부상했고, 신발회사 직원들의 소비는 땅그랑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과 베트남이 새로운 생산기지로 부상하였고,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인도네시아 정치·경제와 사회적 혼란 상황에서 과거 경영관행에 익숙했던 대부분 한국계 신발기업은 경영 악화에 직면한다. 이에 인도네시아 신발 투자기업 1세대로 분류될 수 있는 성화, 가루다인다와, 동조, 스타원, 코리네시아, 태화 등이 2005년을 전후하여 폐업 절차를 밟는다.

인도네시아 진출 초창기 한국 신발기업들은 반뜰주 땅그랑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식 대량생산 제조라인 설비를 갖추고 OEM 방식의 유명 브랜드 주문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지에서 직접 경영방식을 채택한 우리 신발기업은 해외투자 경험 없이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노동자와 갈등과 마찰을 빚어 적지 않은 사회문제로 부각되기도 했고, 이는 한국기업의 해외투자와 인도네시아 진출에 큰 교훈이 됐다.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신발산업이 2005년 파크랜드(PT Parkland World Indonesia)의 풍원제화 인수를 계기로 현지 한국 신발제조업체가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이어 창신(Chang Shin Indonesia)과 태광(Taekwang Industrial Indonesia) 등 대규모 한국 신발기업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신발업체가 제2의 도약기를 맞는다.

2004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집권 후 인도네시아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고 대외 여건이 변화하면서 제조업이 회복하기 시작했고, 재인니 한국상공회의소(Kocham)와 재인니한인신발산



PT Parkland World Indonesia (2016. 10)

업협의회(KOFA)를 중심으로 다시 반등의 기회를 마련했다. 최근 자바섬 내 최저임금 차별화의 이점과 조코 위도도 정부(2014~현재)의 국토 균형 발전 정책에 부응하여 한국 신발기업은 중부자바 주도 스마랑 주변의 즈빠라 지역과 살라띠가, 브레베스 등지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있다. 2016년 이후 한국계 신발업체의 인도네시아 내 이전(반뜰주에서 중부 자바주 또는 수도권에서 수방과 가룟 등 서부 자바주 외곽지역)이 가속화돼 화승, 파크랜드, KMK, 프라타마, 창신, 태광 등 대기업들이 이러한 대이동을 주도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내 한국계 신발업체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생산시스템을 자동화하는 장치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2020년 현재 KOFA는 신발제조회사 20여개 회원사와 자재 및 임가공 회원사 180여개 등 총 200여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회원사는 한국인 근로자 2천여명과 현지인 근로자 25만여명을 고용해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식스 등 글로벌 브랜드 제품을 연간 1억3,200만 켤레, 총 35억 달러 매출액을 기록해 인도네시아 수출실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24 헤리티지와 함께하는 누산따라 이야기



Indonesian
Heritage
Society

by 국립박물관 도슨트



11월 9일 9시-12시

첫번째 이야기 | by 김상태
〈마자빠히트의 흥망성쇠〉

두번째 이야기 | by 이수연
〈찬란한 마자빠히트 제국의 흔적을 찾아서 : 인물
과 유물로 알아보는 마자빠히트 제국〉

11월 16일 9시-12시

세번째 이야기 | by 김현숙
〈인도네시아의 힌두교와 불교〉

네번째 이야기 | by 양범은
〈자바전쟁(디포네고로 전쟁) : 옛 질서의 종말〉



11월 23일 9시-12시

다섯번째 이야기 | by 김정옥
〈와스트라 누산따라(Wastra Nusantara)
: 세계로 뻗어가는 인도네시아 직조물〉

여섯번째 이야기 | by 박송숙
〈와양: 천년의 역사에 담긴 이야기〉

장소

Sentral Senayan I, 17F
Indonesian Heritage Society
(로비에 신분증을 맡기고 올라오
십시오)

수강료

헤리티지회원 50,000 Rp/회
비회원 100,000 Rp/회
(스낵과 음료가 준비 되어 있습니다.)

참가신청

네이버 밴드 헤리티지 코리아
<https://band.us/band/51192466>



SystemEver Indonesia 대표이사 Charles Kwon

인구 2억 7,550만 명이 거주하는 무한한 기회의 땅, 인도네시아. 붉은 적도의 땅에서 당당히 자리잡은 젊은 사업가들의 성공 사례가 미래의 CEO를 꿈꾸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며 [인터뷰 2.0] 영 비즈니스리더 칼럼을 기획했다.

SystemEver는 클라우드 기반 ERP(SaaS) 솔루션을 통해 아시아 전역의 비즈니스 성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1,900개 이상의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SystemEver Indonesia(SEI)는 인도네시아 시장의 특수성에 맞춘 계정 세금 서비스, 무역 및 유통, 제조 산업을 위한 SystemEver iSeries를 출시하여 중소기업의 성공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모기업인 영림원소프트랩은 30년 이상의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전역에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온 선구자이다.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1년, Charles Kwon 사장을 이사로 임명해 자카르타에 SystemEver Indonesia를 설립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독특한 경제적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

SystemEver는 아시아 최고의 클라우드 ERP 회사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경영과 IT에 대한 지식을 쌓고 있다. 회사 내부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중시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직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번 인터뷰는 급속히 성장하는 인도네시아 시장

에서 SystemEver Indonesia가 중소기업들과 어떻게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Charles Kwon 대표이사와의 대화를 통해, 독자들은 SystemEver Indonesia가 제공하는 솔루션의 핵심 가치와 이 솔루션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Asian
Best
Cloud**



Q. SystemEver Indonesia의 대표이사로서의 여정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기술 및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리더십 역할을 맡게 된 계기와 영감은 무엇이었나요?

인도네시아는 국가 차원에서 제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 제조업에 특화된 SystemEver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막대한 잠재력을 지닌다고 판단했습니다. SystemEver의 강점은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 관리와 효율성 극대화에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인도네시아 기업들의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

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ERP 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기술로서 ERP는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SystemEver를 통해 이곳에서 고객 기업의 운영을 돕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많은 고객들을 만나보면, 대부분이 이미 자사 비즈니스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외부 파트너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소프트웨어 제공업체를 넘어, 고객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SystemEver Indonesia가 되고자 합니다.

Q. SystemEver Indonesia는 모기업인 영림원소프트랩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영림원소프트랩의 지원이나 협력이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SystemEver Indonesia와 영림원소프트랩은 고객이 보다 나은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기업의 발전은 물론 궁극적으로 사회의 진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은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지며, SEI는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림원소프트랩은 30년간 2,300개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에 ERP 솔루션을 제공해 온 풍부한 경험과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로 SEI의 성공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의 길이 험난할 수 있지만, 영림원소프트랩의 기술적 지원과 투자 덕분에 SEI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지원은 특히 역량 있는 직원 채용과 인도네시아 시

장에서의 성장,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비즈니스 확장에 큰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림원소프트랩의 한국 내 명성은 한국 기업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SEI는 해외 시장 개척의 최전선에서 아시아 No.1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곧 중요한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EI는 본사와의 협력을 통해 현지에서 더욱 강력한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조만간 가장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SystemEver Indonesia는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주요 사업을 펼치고 있나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주요 성과와 도전 과제는 무엇인가요?

SystemEver Indonesia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중소·중견 제조업체, 특히 봉제 및 신발 산업을 대상으로 사업 저변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아시아 No.1이라는 비전을 달성을 위해 본사에서도 스포츠웨어 사업부를 새롭게 개설하여 인도네시아의 대형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SystemEver Indonesia의 최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의 도전 과제도 존재합니다. 한국 본사인 영림원소프트랩이 한국에서는 높은 네임밸류를 지니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들에게는 그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ERP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현지의 레퍼런스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현지 인력의 경험과 역량을 강화하고, 더욱 신뢰받는 솔루션 제공업체로 자리 잡는 것이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SystemEver Indonesia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현지 시장에 맞춘 특화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성과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Q. 인도네시아에서 현지화 전략을 어떻게 실행하고

계신가요? 인도네시아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는지 궁금합니다.

인도네시아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철저한 현지화**입니다. 초기에는 한국 본사의 제품을 그대로 가져와서 파는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브랜드 이미지가 있는 것도 아닌 제품을 그대로 가져와서 현지에서 팔겠다는 생각 자체가 오만했던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은 시장에서 환영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2,300여 개의 고객을 구축하면서 저희 나름의 가지고 있는 추가 개발(표준 시스템 외에 필요한 기능을 고객 요구에 맞추어 개발)을 통해 구축하는 컨설팅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이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만족시켜줄 수 있고, 사용 후에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지 인적 자원의 육성에 많은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현지 컨설턴트와 개발자를 양성하여, 현재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발생하는 프로젝트의 추가 개발을 현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지에서의 고객 요구를 더욱 신속하게 충족할 수 있게 되었고, 레퍼런스를 축적함으로써 현지화된 기능을 제품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시장은 ERP 분야입니다. ERP는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서 표준화된 프로세스로 데이터를 처리하여 회계 및 원가를 건드려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 통합과 정확성에 초점을 더 맞추게 되고 사용성 측면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날 수 있는 위험부담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ERP와 자체 모바일 APP을 결합한 형태의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요약하자면, ERP 본연의 목적을 살려두고 ERP 외적으로 필요한 관리 기능들을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는 ERP와 연계하여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의 ERP로 만족할 수 없었던 부분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어 고객만족도 또한 높아 질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Q. SystemEver Indonesia와 영림원소프트랩이 <한인문화연구원>에서 올해 공식적으로 처음 제정된 인도네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나의 한국 이야기> 공모전을 공동 주최하게 된 특별한 이유나 계기가 있을까요? 이 행사가 회사와 사회에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시나요?

SystemEver Indonesia와 영림원소프트랩이 이번 <나의 한국 이야기> 공모전을 <한인문화연구원>과 공동 주최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기업의 영역을 넘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 역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으로서 환대받고 존중받으며 생활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함에 대한 보답의 일환으로, 한국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문학적인 소견으로 회사나 사회의 의미를 논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웃음) 그러나 개인적인 의미로 서 말씀을 드린다면, 회사 차원에서 문학상을 통해 양국 간의 문화적 소통을 확장하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공모전을 통해 한국이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들이 한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상작들은 문학적 가치도 지니고 있어, 양국 간의 문화적 이해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나의 한국 이야기> 공모전이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문학상으로 자리잡기를 희망합니다.

특별히 특정한 성과나 영향을 기대하고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한국 문화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갖길 바랍니다. 또한, 이 행사를 통해 한국



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고, 두 나라 간의 문화적 소통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희망합니다. 행사의 본질은 참여자들이 스스로 느낀 한국과의 연결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청년들이 창의력과 자신감, 그리고 문화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이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Q.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SystemEver Indonesia가 추구하는 인재 발굴 및 육성 전략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SystemEver Indonesia는 인재 발굴에서부터 전략적 접근을 중요시합니다. 특히 ERP 산업은 고객의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서비스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 능력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현지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본사에서 시행하는 적성검사 시험을 적용하여 논리적 사고 능력을 평가합니다. 채용 후에는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직원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지식과 시야를 넓혀 고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SystemEver Indonesia가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Q. SystemEver Indonesia의 향후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성장 전략과 글로벌 확장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SystemEver Indonesia는 앞으로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성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은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를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역량 있는 파트너와 협력하여 시장을 넓혀 나가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내 다양한 지역을 커버하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파트너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더 많은 고객 레퍼런스를 확보함으로써, 파트너와 함께 인도네시아 전역에 SystemEver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적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더 큰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고,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파트너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SystemEver의 기술력과 비즈니스 노하우를 나누며, 인도네시아의 넓은 시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략해 나갈 것입니다.

Q. Charles Kwon 대표님, 개인적으로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개인적인 목표나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 발전에 맞춰, 그 속도에 뒤처지지 않는 학습과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웃음) 특히, AI 기술은 이미 실생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문제는 그 기술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AI 기술이 필요할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문제 해결의 도구 중 하나일 뿐,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문제를 정의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학문적 배경과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기회를 만들



어 다시 학문으로 돌아가, 기술 관련 분야에서 더 많은 학위를 취득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리더로서 더 나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AI와 기술 환경에서 앞서 나가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Q. 성공적인 비즈니스 리더로서의 길을 걷게 된 계기나 인생에서 가장 큰 영감을 준 사건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아직 성공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럽습니다. 여전히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도 멀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을 꼽자면, 인도네시아로 파견된 것이 가장 큰 계기였습니다. 만약 제가 인도네시아로 오지 않았다면,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빨리 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부터 법인 설립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들 속에서 배운 점들이 쌓이면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고, 그 덕분에 리더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길을 걷고 있으며, 앞으로도 분명 실패할 때가 있겠지만, 저는 **중.격.마**(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라는 마음가짐으로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웃음)

Q. 업무 외의 시간에는 어떤 취미나 활동으로 에너지를 충전하시나요?

업무 외 시간에는 주로 건강에 투자하며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싱에 푹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오로지 그 순간에

만 몰두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체력이 부족해 오래 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지만, 머리를 비우고 재충전하는 데는 이만한 운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체력이 점점 향상되고 있습니다. (웃음)

Q. 인도네시아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도 아직 젊은 세대의 일원이라 조언을 드리는 게 조심스럽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도네시아는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많은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소비층이 형성되어 있지만, 여전히 성숙되지 않은 시장이 많아 성장 가능성이 큼니다. 다만, 간단히 시도해 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는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창업을 결심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사업을 하면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는 더욱 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고,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런 일이 빈번합니다. 그러니 한 번 시도하기로 했다면, 끝까지 해내겠다는 강한 결심과 마음가짐이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도전과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겠지요?

Q. 마지막으로, 한인뉴스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인도네시아는 많은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장입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어려움과 좌절을 겪을 수도 있지만, 저 역시 한인 사회의 많은 도움을 받아왔고, 이러한 한인 사회가 있다는 것이 큰 자랑이자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한인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 있으며, 이미 깊이 뿌리내린 한인 사회가 이분들을 잘 흡수하고 지원한다면, 한인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더욱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 또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란잘란 수마트라 : 자바 너머 황금섬 이야기

지난 10월 19일(토) 오전 자카르타 한인니문화연구원(원장 사공경)에서 제 87차 열린강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강좌는 동남아 전문가 엄은희 박사(지리학, 아시아비전포럼 상임연구위원)가 <잘란잘란 수마트라 : 자바 너머 황금섬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인도네시아 한인이주사와 진출기업 이야기, 팜오일과 도시화 등 환경과 개발의 문제를 폭넓게 연구해 온 엄은희 박사는 EBS의 대표 여행 프로그램인 세계테마기행 촬영을 위해 지난 3주간 수마트라 전역을 여행한 바 있다.



강의 내용은 여행 준비 과정에 축적한 섬에 관한 역사지리적 지식과 실제 여행의 경험에서 얻은 지리학적 통찰을 담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서쪽 끝, 사방(Sabang)섬 혹은 웨(Weh)섬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사방에서 메라우케까지”라는 용어의 기원이 된 인도네시아 영토의 시작점, 제로 킬로미터(Kilometer Nol Indonesia) 기념비를 볼 수 있다는 것도 흥미롭다.

‘다양성 속의 통합’을 지향하는 수마트라 인도네시아인들의 영토 탐험 이야기, 과당 음식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사실은 바리산 산맥 줄기인 마라피 화산을 기원으로 삼았던 황금섬의 진짜 주인 미낭카바우족 이야기, 한국방송에서는 처음 다뤄질 정도로 접근이 쉽지 않은 동남아 화산 최고봉 크린치(Gunung Kerinci) 권역의 자연유산과 같은 이야기가 흥미롭게 전개되었다.

1883년 화산 대폭발로 사라진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에 위치한 크라카타우섬 이야기는 우리 인간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약 3만6천명이 사망했고 6,500척이 수장되었다. 하늘을 덮은 화산재로 인해 저온현상이 3년 동안 이어졌으며, 특히 인근 바타비아(Batavia)는 8도나 떨어졌다. 에드바르 뭉크의 그림 <절규>에서 들리는 비명소리가 이 화산 폭발에서 연유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된다. 다시 화산 분출이 반복되면서 1927년에 아낙 크라카타우섬이 만들어졌다. 최근 폭발은 2018년, 2023년에 일어났다..

강의의 마무리는 수마트라를 ‘점이 아닌 선으로’ 여행하는 여러 방법을 제시하며, 교민들에게 북적거리는 대도시 자카르타와 자바 너머 인도

네시아의 다양한 자연생태와 문화를 경험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엄은희 박사가 큐레이터로 참여한 EBS 세계테마기행 <인도네시아, 서쪽으로 튀어>(가제)는 11월 18일(월)~21(목)까지 4일간 방영될 예정이다.



법치국가(Negara Hukum)(1)

“Negara Indonesia adalah negara hukum” (인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이다). 인도네시아 1945년 헌법 제1조 3항은 인도네시아가 법치국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2024년 10월 20일 인도네시아 제 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군인 출신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의 국정 공약이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98년 5월 20일, 33년 동안 군부 통치를 한 Orde Baru 정권의 수하르토(Soeharto) 대통령 하야 이후 모든 대통령은 계속해서 개혁을 추진했으며, 급하게 개혁을 밀어붙이다가 기득권층과 충돌로 2년 집권 후 탄핵을 당해 대통령직에서 타의로 물러난 이슬람 성직자였던 압두 라만 와히트 구스두르(Abdurrahman Wahid Gusdur) 대통령, 대통령이 탄핵되자 부통령에서 대통령으로 취임한 메가와티 수카르노뽀트리(Megawati Soekarnoputri,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의 딸) 여자 대통령, 인도네시아 역사 상 처음으로 직선제로 선출되어 5년 임기 대통령직을 연임하여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평가받는 장군 출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 중부 자바주 솔로(Solo)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2014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연임으로 10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통령은 법치를 약속하고 개혁을 추진했으나 강하게 법치를 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과 외자 투자 기업인은 법의 확실성(Kepastian Hukum)을 간절하게 바란다. 법치 국가, 즉, 법이 지배하는 국가가 되면, 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예측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권리가 신장하고,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전하여,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새 대통령 임기 5년 중에 법치국가 실현은 현실적으로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법치를 국정 철학으로 삼고 국가와 민족을 돌보겠다는 새 대통령의 국정 공약에 기대를 걸어 본다. 법치 국가는 어떠한 제

도와 상황이 되어야 하는지, 인도네시아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도네시아의 사법 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법원의 공정한 재판이 법치국가의 상징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는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세계 만국은 하나같이 자국이 법치국가이며 민주주의 국가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법치국가의 기준이 지역에 따라 사상에 따라 상이하게 인식되며 그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가. 대륙법제도 (Civil Law)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 (1).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 (2). 국민의 기본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이 분리 혹은 배분되어 있어야 한다.
- (3). 국가에서 내리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정법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나. 영미법제도 (Common Law)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 (1). 법 지상주의(법이 최고의 기준이라는 주의)가 실현되어 있어야 한다.
- (2). 국민의 법률상의 지위가 동등해야 한다.
- (3).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다. 사회주의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재산 공유가 국민복지 달성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민도 법도 공산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법치국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라. 1965년 방콕 국제법 회의에서 합의한 법치국가의 기준

- (1). 국민의 기본 인권을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 (2).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 (3). 자유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 (4).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 (5).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 (6). 교육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2. 인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인가?

1945년 헌법 제1조 3항은 “Negara Indonesia adalah negara hukum” 으로 인도네시아는 법치국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350년 간 화란의 장기 식민 통치의 결과로 대륙법계 국가가 되어 있어서 상기 “가” 항의 대륙법계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으로 봐서, 상기 “가” 항의 형식적인 요건은 다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국가에서 내리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정법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는 실질적인 요건은 아직은 갖추지지 않았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현실은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판결이 비법적인 사항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아무도 부인하기가 힘들다. 아직도 많은 사람은 사법부에 대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사법부의 구성

사법부는 크게 둘로 나뉘서 대법원 및 산하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구성돼 있다.

4. 사법부의 조직

사법부는 지방법원, 상업법원, 노동법원, 행정법원, 부정부패척결법원, 세무법원, 종교법원, 군사법원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인도네시아 최서북단 Aceh(아체) 특별주에는 이슬람 법원이 있다. 지방법원은 시/군 단위로 있으며, 고등법원은 주 단위에 있고 자카르타에 모든 법원을 총괄하는 대법원이 있다.

5. 법원의 재판 원칙

가. 모든 재판은 “유일신 신앙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 의역을 하면 판사는 신을 대리

하여 신처럼 공정하게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사법부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원칙이다. 법률로 사법부에게 정해진 이 재판원칙이 언젠가는 인도네시아에서 실현되기를 마음이 간절하다. 나. 실정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도 법정에 세울 수 없다.

다. 법정 증거력이 있는 증거물로 입증되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

라. 합법적인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서면 명령서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체포, 구금, 수색 혹은 압류당할 수 없다.

마. 피의자, 피체포자, 피구금자 혹은 피고는 법원의 유죄선고 확정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간주 원칙이 적용된다(유죄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되며 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바. 무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 피체포자, 피구금자 혹은 피고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 죄가 없는 사람을 고의로 체포, 구금 혹은 재판한 공무원은 형사 처벌한다.

아. 법원은 근거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된 소송의 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소송이 청구되면 이 유불문 하고 반드시 재판을 해야 하는 의무가 판사에게 부여 되어 있다).

자. 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부는 반드시 최소 3명이상으로 구성한다.

차. 형사재판에는 반드시 검사가 참석해야하며, 모든 재판은 법원서기가 배석하여 판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카. 형사 재판은 피고 참석 재판을 원칙으로 하나 법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 결석 재판을 할 수 있다.

타. 모든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법에 정한 바에 따라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

파. 소송 사건 선고를 위한 재판부 판사 간의 협의 내용은 비밀에 속한 사항이므로 비공개한다.

(다음 호에 계속)

2024 JIKS KOREAN DAY

- 인도네시아 중심에서 한국 문화를 즐기다! -



지난 10월 2일 (수),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이선아)에서 2024 JIKS KOREAN DAY 행사가 진행되었다.

총 21개의 프로그램과 각종 문화 공연으로 구성된 행사에는 JIKS 초등학생 전체, 한인유치원, 인도네시아 현지학교를 비롯하여 많은 내빈 및 한인 동포들이 참가하여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높이고 대한민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축제의 한마당을 즐기는 시간이 되었다.

한국의 수준 높은 전통문화에 대한 직·간접 체험을 제공한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본 행사를 기획 및 총괄을 한 송삼순 선생님은 “Korean Day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고 한인 동포, 현지 주민과 함께 화합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알리며 앞으로 인도네시아와의 문화 교류가 더 활발했으면 한다.” 고 소감을 전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중심인 자카르타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함께 즐기고 알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코리안데이 행사 영상은 본교 유튜브 사이트(<https://www.youtube.com/channel/UCSYXn53dJC0DRTYkydZTXMw>)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다.



JIS ALUMNI

Once a Dragon, always a Dragon

K O R E A N R E U N I O N

**자카르타국제학교
동문들을 초청합니다**

23 Nov 2024 | 16:00
JIS Cafeteria 3rd Floor

RSVP Only | 윤제웅(2010) 총무
+62 821 2707 7241
jisalumnikr@gmail.com



JIS

Jakarta
Intercultural
School

지스 한인 동문회



동문회 가입

2024 임원외비 남부명단

기준 : 2024.1.1 ~ 2024.10.29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1	회장	박재한	JAVA PALACE HOTEL	20,000	
2	명예회장	신기엽	PT. HANINDO EXPRESS UTAMA	10,000	
3	명예회장	양영연	PT. TAEWON INDONESIA	10,000	
4	명예고문	김우재	PT. KOIN BUMI	5,000	
5	고문	김우진	PT. SAMINDO ELECTRONICS	5,000	
6	고문	김준규	PT. CIPTA ORION METAL	5,000	
7	고문	송창근	KMK GROUP	5,000	
8	고문	신규태	PT. INDO SUNG IL JAYA	5,000	
9	고문	이호덕	ROYAL SUMATRA GROUP	5,000	
10	수석부회장	김종현	PT. KOIN BUMI	10,000	
11	수석부회장	손한평	PT. DONGSAN HOLDINGS	10,000	
12	수석부회장	채영애	한인회 여성분과	10,000	
13	부회장	강선학	PT. ALPHA TOY INDONESIA	5,000	
14	부회장	강호성	PT. ANUGRAH CIPTA MOULD INDONESIA	5,000	
15	부회장	김문수	PT. QUTY KURNIA	5,000	
16	부회장	김육찬	PT. GARUDA TWIN JAYA	10,000	2023-2024
17	부회장	김응철	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5,000	
18	부회장	김창곤	KODECO ENERGY CO LTD	5,000	
19	부회장	박상갑	PT. VIDEX INDONESIA	5,000	
20	부회장	박성대	PT. HANJIN INDONESIA JAYA	5,000	
21	부회장	승범수	TSE GROUP	5,000	
22	부회장	양태화	PT. BOSUNG INDONESIA	5,000	
23	부회장	오인택	PT. BANK IBK INDONESIA TBK	5,000	
24	부회장	이우열	PT. BANK BUKOPIN TBK	5,000	
25	부회장	이정호	PT. HEONZ ROYAL JAYA	5,000	
26	부회장	이정휴	PT. GEE SAN INDONESIA	5,000	
27	부회장	이종남	PT. SINYOUNG ABADI	5,000	
28	부회장	이주환	PT. MEDISON JAYA RAYA	5,000	
29	부회장	장윤하	PT. HARINDO	5,000	
30	부회장	정용완	PT. HUNG A INDONESIA	5,000	
31	부회장	최재혁	PT. HILON INDONESIA	5,000	
32	부회장	하재수	PT. ROYAL PUSPITA	5,000	
33	자문위원장	구종율	PT. JASINDO DUTA SEGARA	2,000	
34	자문위원	강희중	PT. SUNG TECHNOLOGY	1,000	
35	자문위원	길병완	PT. DAEYOUNG DUNIA SUBUR	1,000	
36	자문위원	김소웅	PT. SCI	1,000	
37	자문위원	김영만	PT. BATAVIA CHEMTEK	1,000	
38	자문위원	김영욱	PT. GAYA INDAH KHARISMA	1,000	
39	자문위원	김영주	PT. DEWA CITRA SEJATI	1,000	
40	자문위원	김주철	PT. STAR CAMTEX	1,000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41	자문위원	김태화	PT. EEN STEEL INDONESIA	1,000	
42	자문위원	김희익	PT. EPS INDONESIA	1,000	
43	자문위원	석웅치	PT. DAYUP INDO	1,000	
44	자문위원	엄정호	PT. ING INTERNATIONAL	1,000	
45	자문위원	오세명	PT. SUNGLIM CHEMICAL	1,000	
46	자문위원	이승민	PT. YSM & PARTNERS	1,000	
47	자문위원	이종현	PT. LEO KORINSIA	1,000	
48	자문위원	이진호	PT. JIN YOUNG	1,000	
49	자문위원	조규철	PT. DONG JUNG INDONESIA	1,000	
50	자문위원	채만용	PT. CITRA BINA MAJU JAYA	1,000	
51	자문위원	하연수	PT. SEOLIN NIAGATAMA	1,000	
52	이사	강기훈	PT. PLATECH JAYA INDONESIA	1,000	
53	이사	강병찬	PT. GLOBAL INDOREKSA ASIA	1,000	
54	이사	강수한	PT. CHAEUM DESIGN	1,000	
55	이사	강윤석	PT. PLATECH MOLD INDONESIA	1,000	
56	이사	김경곤	PT. SUKWANG INDONESIA	1,000	
57	이사	김경국	PT. CYBER WORLD INDONESIA	3,000	2022-2024
58	이사	김동석	PT. DUNIA TRANSPORTASI LOGISTIK	1,000	
59	이사	김민규	PT. WOORI CONSULTING	1,000	
60	이사	김신	PT. YUBI TECHNOLOGY	1,000	
61	이사	김영섭	PT. INDIGO MEDICAL INDONESIA	1,000	
62	이사	김영율	PT. SUNG CHANG INDONESIA	1,000	
63	이사	김영주	PT. SAINT JAMES	1,000	
64	이사	김옥준	BSI GROUP	1,000	
65	이사	김일태	PT. OROM	1,000	
66	이사	김형근	PT. GAYA INDAH KHARISMA	1,000	
67	이사	김호권	PT. SUNSHINE TECHNICA INDONESIA	1,000	
68	이사	김화룡	PT. BANGUN MAJU LESTARI	1,000	
69	이사	남궁훈	PT. HANWA LIFE INSURANCE INDONESIA	1,000	
70	이사	노예범	PT. SAM PUTRA INTI	1,000	
71	이사	박광률	PT. SHINWOO GLOBAL INDONESIA	1,000	
72	이사	박영진	PT. JUBIT CONSULTING INDONESIA	1,000	
73	이사	박주상	PT. TOU RUBBER INDONESIA	1,000	
74	이사	백상현	PT. CKD OTTO PHARMACEUTICALS	1,000	
75	이사	서영률	PT. PRATAMA ABADI INDUSTRI	1,000	
76	이사	손석기	PT. PERKASA INDAH MAKMUR	1,000	
77	이사	송영한	PT. KOFORM INDONESIA	1,000	
78	이사	송판원	PT. KORYE POLIMER	1,000	
79	이사	신호진	PT. HANINDO EXPRESS UTAMA	1,000	
80	이사	안선근	U.I.N UNIVERSITY	1,000	
81	이사	안창섭	PT. PETRASAKTI MADYATAMA	1,000	
82	이사	양시완	PT. KISWIRE INDONESIA	1,000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83	이사	오동훈	PT. FNS TRANSBUANA	1,000	
84	이사	유용선	PT. DAEHWA INDONESIA	1,000	
85	이사	윤수학	PT. DAE YOUNG APEX	1,000	
86	이사	이근대	PT. DONGBANG	1,000	
87	이사	이상일	PT. UNGARAN INDAH BUSANA	1,000	
88	이사	이성삼	PT. LSS (LIGA SEJATI SEJATRA)	1,000	
89	이사	이세호	PT. GORI GLOBAL INDONESIA	2,000	2023-2024
90	이사	이승수	PT. SINYOUNG ABADI	1,000	
91	이사	이옥찬	PT. KORINA SEMARANG	1,000	
92	이사	이지완	PT. JIN YOUNG	1,000	
93	이사	이철훈	PT. INDO BOX UTAMA JAYA	1,000	
94	이사	이한주	PT. SAJI SEGAR LESTARI	1,000	
95	이사	임일택	PT. ACE MOLD TECH	1,000	
96	이사	장영관	PT. LAYCO	1,000	
97	이사	정상봉	PT. DAESANG INGREDIENTS INDONESIA	1,000	
98	이사	정창섭	PT. DAEWOO LOGISTICS ASIA	1,000	
99	이사	조용재	PT. SUNG CHANG INDONESIA	1,000	
100	이사	최재혁	PT. INDO BUMI LESTARI	1,000	
101	이사	최재희	PT. STONE CANYON INDONESIA	1,000	
102	이사	최제동	PT. CMS CHEMICAL INDONESIA	1,000	
103	이사	최태립	PT. INTERNATIONAL TOTAL SERVICE & LOGISTICS(ITL)	1,000	
104	이사	홍기호	PT. AURORA WORLD CIANJUR	1,000	
105	이사	홍종서	PT. ARION TECH INDONESIA	1,000	
106	이사	황의상	PT. SEPULUH SUMBER ANUGERAH	1,000	

생활정보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발리분관(당직폰)	0811 3831 3659
주아세안대한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 1900, 2992 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 30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꿈나무학교	5579 440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끌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SJ)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SWA BSD 0812 8689 2897
SWA Thamrin 2993 7234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꿈나무유치원 5576 7509

•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G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DAMAI INDAH [BSD] 537 0290
DAMAI INDAH [KAPUK] 588 2388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400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EDATON 590 9236
KEMAYORAN 654 1156
KRKATAU 0254)385 319
MODERN 552 9228
PADANG GOLF HALIM 800 5762
PALM HILL 8795 4888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2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1212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IVER SIDE 867 1528
ROYAL JAKARTA 8088 8999
SEDANA 0267)644 730
SEDAYU 5020 8088
SENTUL HIGHLAND 8796 0266
SUVARNA 0811 1586 873
TAKARA 549 6371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조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PT. SSA(종합건설) 0812 1956 0188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자카르타 명상센터 0821 7777 9972
땅그랑 명상센터 0821 7777 9973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당)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Jasmin Hair Salon 1 7280 0019
0811 956 2500

Jasmin Hair Studio 2 7278 0255
Jasmin Hair Studio 3 7278 6530
레르아뷰티샵 0858 5111 1222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차르헤어 7279 6998
선스파 021-2793-3625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병원

관준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미르한반병원 0856 9453 7974
Central Clinic 2709 9272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Indo Dental (치과 의사 정해정) 0815 1004 2004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 본점 722 2214

woori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Website : www.woori-consulting.com



서로 도와 함께 가는 우리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SMILE KIMBAB
Living World Alam
Sutera, UG floor,
Serpong Utara,
Tangerang Selatan

081292184018



SMILE KIMBAB

무궁화 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 씨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 다르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 뽕독인다점	7590 5488
무궁화 꿀라빠가당점	453 3624
무궁화 씨부부르점	2217 7281
무궁화 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 스마랑점	024-7640 4783
무궁화 반둥점	022-8200 1674
무궁화 꼬따 바루점	022-8680 2262
무궁화 족자점	0274-288 5156
무궁화 발리점	0361-475 2734
무궁화 보고르점	0251-831 5175
무궁화 츠빠라점	0813 2158 5673
무궁화 뽕루잇점	0811 841 4188
무궁화 마카사르점	0811 46 0678
무궁화 빈따로점	0821 2292 9591
무궁화 바뽕점	0812 6664 8989
무궁화 BSD점	0811 1565 988
무궁화 빈판점	0812 6664 8989
무궁화 PIK점	0813 8839 6190
무궁화 반자르마신점	0811 5595 777
무궁화 가딩세르프점	0813 1630 5312
무궁화 빨렘방점	0813 9067 0995
무궁화 뽕띠아낙점	0812 5623 112
무궁화 꾸닝안점	0821 1448 0988
무궁화 고훈주룩점	0813 8610 8800
무궁화 아마르따뿌라점	0815 9977 689
무궁화 롯데에비뉴:	0811 870 386
무궁화 쯔빠까마스점	0818 839 846
무궁화 뽕독빠낭점	0811 8822 891
무궁화 솔로점	0858 0375 3035
무궁화 메단점	0813 7634 2842
무궁화 발릭바판	0821 4861 0000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무궁화 꼬랑점	021 722 7214
무궁화 씨부드라점	0821 1448 0988
무궁화 라베뉴점	0852 8279 9647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K-마트	2277 5526
KOREA MART(수라바야)	031 734 3989
● 식당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마골	021 7278 7789
가야성	725 7373
가호(MOI)	0811 9966 677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경복궁(씨부부르)	021 3885 304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3 3315
마포	7279 2479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1(세노파티점)	722 1852
설악추어탕2(꿀라빠가당점)	2937 5435
소래포구	8990 5051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한옥(자카르타)	0812 1119 1991
한옥	0254-385 588
깜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씨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감미옥	5579 461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다움	021 5081 3656
용대리 (SCBD)	021-5150 7734
	0812 5723 7627 (WA)
(Kelapa Gading MOI)	021-2245 0964
	0811 887 5705 (WA)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수하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찌까랑	2909 3000
산정 까북	3005 1650
유가네	2221 3392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에원	021-7212-0533
찬찬	0812-1060-4848
숙달	0821-4007-7256
지원갈비	021-7212-0436
쭈꾸미도사	085775245314
하나	0254-393 2146
하누	021 722 2365
한상 (PIK)	0812 8881 1532
홍대포차	726 4999
홍콩반점	0812-2442-6092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0812 1004999
한인포스트	4586 9199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옵틱무티아라안경원	5793 7969
-----------	-----------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트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JASMIN HAIR SALON

Jasmin Hair Salon 1 (한국 미용실)
Darmawangsa Square 1F G46 Jakarta Selatan
영업시간 09:00~19:00 Tlp. 021 7280 0019/0811 956 2500

Jasmin Hair Studio 2 (현지 샬롱)
영업시간 09:00~20:00 Tlp. 021 7278 0225

Jasmin Hair Studio 3 (맞사지, 네일 전문점)
영업시간 09:00~20:00 Tlp. 021 7278 6530
Darmawangsa Square GF (Studio 2 G40, Studio 3 G54)

Inko Batam (바뎀)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료기

PT. CGM INDONESIA	0811 155 652
-------------------	--------------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울맏테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021 526 5512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34 119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오름 컨설팅
OROM CONSULTING
SINCE 1996



ITAS - ITAP - SILVER VISA
PENDIRIAN & DOKUMEN PERUSAHAAN
APOSTILLE - NATURALISASI
법인설립 (PMA & PMDN)
VISA INTERNATIONAL (Korea, China, Jepang, Singapore, Schengen, etc.)

Ruko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 Jakarta Utara 14240

Winda (Team 1)
(021) - 4585 6898
(0811) -882 1462

(한국인) Kakao ID : indocity1991
visa.orom@gmail.com
www.orom.co.id

Suhada (Team 2)
(021) - 2245 5879
(0812) - 9759 8638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고기고기
밴드(김군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dailyindonesia.co.kr



데일리 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 종교 단체

<기독교>

가나안 교회(이병우)	021-8911-7591 0821-1837-9995
꿈이 있는교회(김현준)	0821 2507 9069
땅그랑 교민교회(김재봉)	0815-1980-5788
사랑의 교회(이명호)	0815-7453-7254
자카르타소망교회(김종성)	021-739-6487 0813-1104-3000
의의 나무교회(이의덕)	0813-8181-5570
예사랑 교회(박병삼)	0815-1041-9991
인도네시아 열린 교회 (김용구)	0878-0844-5537
자카르타 늘푸른 교회 (정형진)	0811-813-7529
자카르타 동부 교회 (김정우)	0815-1016-5670
자카르타 믿음 교회 (조광용)	0811-194-8291
자카르타 주님의 교회 (김완일)	0811-192-7255
자카르타 중앙 교회 (여성호)	0813-8103-9768
자카르타 한마음교회 (고형돈)	0812-8983-1433
자카르타 한인 안디옥교회 (김종근)	021-750-9548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 (정효진)	0822-9898-0191
찌프라라야 은혜교회 (고재천)	0811-841-312
짚레곤 늘푸른 교회 (고재일)	0822-1361-2537
참빛교회(박윤길)	0813-1488-1753
한인열방교회(송광욱)	0811-951-762

반 등

반등 반석 교회 (박성규)	0813-2039-8285
반등 아름다운 교회 (박성훈)	0813-2233-0119
반등 한국인 교회 (이제우)	0811-2233-1515
반등 한빛 교회 (김정래)	0821-1920-3495
스마랑/족자 스마랑 한인교회 (윤성득)	0812-134-1932
족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서인석)	0856-4366-6891
족자카르타 우리 교회 (김성태)	0812-2450-2126
한뜻교회(살라티가) 이기호	0298) 311 905 0812-1538-8515

수라바야

수라바야 한인교회 (박유신)	0811-3020691
수라바야 선교교회 (박명수)	0812-3537-3054
메단&발리 메단 한인 교회 (조원동)	0813-6120-1305
발리 한인 교회 (유호종)	0812-3676-8029
발리 세움 교회 (정문교)	0821-4764-8665
칼리만탄 발릭파판 한인교회 (이성현)	62-8115400-863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OK컨설팅	0852 8185 5551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블루하우스게스트하우스	081280513637
KAKAOTALK ID : theblueid	
둥지 하숙	3608 9316
리쁘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동부자바포교원)	765 6036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쉴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날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31 1030
(공항지점)	8082 2291~2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얏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플라빠가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야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수출·무역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반동 (지역번호 02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안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발리지역의 문의는 당분간 발리한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화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1 176 184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윤)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건우)	0815 1902 4123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서울 영동고(최성욱)	0811 1920 121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12 6666 3338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서동운)	0813 8568 1122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이종현)	0811 151 7181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 975 205
부산대(류재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 1177 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서울시립대(이승수)	0811 869 302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송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신송호)	0813 8981 5656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재인도네시아 지역한인회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재인도네시아한인회 [0812-1960-308]	회장	박 재 한	0816-825-931
		사무국장	최 인 실	0812-9881-6816
2	땅그랑반튼한인회	회장	채 만 용	0813-8621-5850
		사무국장	김 예 형	0821-8166-6137
3	찌까랑 한인회	회장	안 윤 근	0812-8164-8333
		사무총장	송 영 한	0812-902-6148
4	보고르한인회	회장	(공 석)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5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980-337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6	반둥한인회 [022) 200-2154]	회장	김 은 수	0812-8811-1733
		사무차장	정 상	0815-4650-3667
7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024) 7648-2020]	회장	채 환	0822-2021-5725
		사무국장	유 성	0811-2777-490
8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8690]	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사무국장	이 대 섭	0812-1767-9007
9	족자카르타한인회 [0274) 497-761]	회장	박 현 두	0821-3595-5522
		총무	조 경 민	0821-3342-8818
10	즈빠라한인회	회장	박 호 섭	0812-6666-3338
		사무총장	조 영 성	0813-9032-3355
11	발리한인회 [0822 1996 3355]	회장	김 동 수	0811-394-551
		수석총무	김 성 희	0811-398-976
12	롬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총무	이 용 구	0812-3810-4649
13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서 명 택	0821-7300-0120
		총무	윤 진 만	0857-7825-6241
14	메단한인회	회장	안 의 현	0811-6103-332
		총무	박 성 준	0813-7512-6888
15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권한대행)	한 정 곤	0811-419-200
16	칼리만탄 한인회	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국장	권 태 윤	0812-9881-6841



2026 FIFA WORLD CUP QUALIFIERS
AFC'S ROUND 3

인도네시아 한국, 원팀 *INDONESIA KOREA BERSATU*



FRIDAY, 15 NOVEMBER 2024
GELORA BUNG KARNO STADIUM



INDONESIA



JAPAN

이벤트



- 무료티켓 사전 신청 바로가기 QR
- 선착순 200명
- 티켓 & 티셔츠 경기당일 현장 배부
- 배부시간 및 장소 추후 공지

